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 PRACTICAL STRATEGY FOR PLANTING A HEALTHY CHURCH IN AN URBAN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IGHT OF THE WORLD CHURCH

written by

**JONGPI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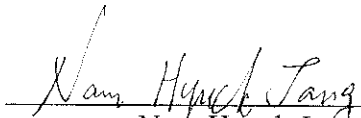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_\_\_\_\_  
Nam Hyuck Jang

  
\_\_\_\_\_  
Seungkeun John Choi

  
\_\_\_\_\_  
Jin Ki Hwang

January 8, 2015

**A PRACTICAL STRATEGY FOR PLANTING A  
HEALTHY CHURCH IN AN URBAN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IGHT OF THE  
WORLD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ONGPIL LEE**

JANUARY 2015

도심지역에서의 건강한 교회 개척 방안  
- 세상의빛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장 남 혁 교수

이 종 필

2015년 1월

## Abstract

A Practical Strategy for Planting a Healthy Church in an Urban Area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ight of the World Church

Jongpil Lee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espite the staggering numerical growth of the Korean church in the past, now it is not only stagnant but has also lost its credibility in society. In this ministry focus paper, I argue that planting new churches and making them healthy communities that meet the demands of the time could be one solution to these serious challenges. This ministry focus paper presents a strategy to plant healthy churches in urban areas.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stating the questions,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chapter 2 biblically and theologically explores what a healthy church is—seeing the church as the community and agent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Chapter 3 surveys the biblical basis for church planting and then argues that church planting to create healthy churches is necessary in the Korean context today.

Chapter 4 deals with the process of preparation for planting a church in an urban area. This chapter describ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ople living in urban areas. Because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people in urban areas are the younger generation, this chapter especially depicts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in urban areas. This chapter then suggests a direction for church planting in urban areas, emphas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mporary culture and church ministry and non-authoritarian leadership.

Chapter 5 demonstrates the church planting process and growth of the Light of the World Church. After explaining the pastoral philosophy emphasizing the congruence between faith and life, this chapter describes how the church was planted. While scrutinizing ministries the church h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being a healthy community, such as worship, small groups, community service, various prayer meetings, and so on, this chapter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church's ministries.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Nam Hyuck Jang,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 감사의 글

이번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늘 도망가려던 요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때마다 강력한 임재로 인도하시고, 선하신 계기로 자극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줄고이지만 박사과정을 마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기분이 좋고 든든합니다.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영감 있는 강의로 채워주신 교수님들과, 논문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시면서 지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격려와 칭찬의 힘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주신 장남혁 박사님, 그리고 늘 독려하시면서 모든 과정에 신실하게 코치해 주신 김태석 목사님과 저의 동기인 늘 개인적 격려를 해 주신 이석환 목사님과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박사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나에게 아낌없이 배려해준 아내 의정과 세 자녀 시은 지민 재현, 부족한 담임목사에게 늘 인내를 베풀어준 사랑하는 세상의빛교회의 성도님들, 두서 없는 많은 교회의 일들을 인내심과 자부심으로 감당해 준 동역자 오현 목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스승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저의 사상의 깊은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선친이자 스승이자 멘토이신 아버지 故 이재화 목사님과 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어머니 황순임 사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저의 강의와 세미나에 참석하여 수업을 들어주신 신학생과 목회자분들, 그리고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책과 원고를 쓰게 하셨던 출판사와 기독교잡지사, 신문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말에 귀 기울여주셨던 분들이야말로 저의 영감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동기부여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세심한 손길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정과 신실로 사역하면서 모든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같은 시대에 공부하며 때론 같은 교회에서 때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며, 목회의 본질에 대해 함께 고민한 선후배, 동료 목회자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고, 그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논문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15년 2월 이종필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개요 .....	6
제 2 장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	9
제 1 절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 .....	9
1.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	10
2.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 .....	12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13
4.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 .....	15
제 2 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건강한 교회 .....	16
1. 하나님 나라와 교회 .....	17
2.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	19
3. 하나님의 통치영역(땅)을 바라보는 교회 .....	21
4.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 .....	23
5.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건강한 교회 .....	24
제 3 장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의 교회개혁의 의미 .....	26
제 1 절 교회개혁의 정의와 성경적 근거 .....	26
1. 교회개혁의 정의 .....	26
2. 교회개혁의 성경적 근거 .....	27
제 2 절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의 교회개혁의 의미 .....	29
1. 새로운 지역으로의 교회개혁 .....	30
2. 새로운 세대와 대상으로의 교회개혁 .....	31
3. 새로운 교회에 대한 요구 .....	33



4. 새로운 교회 운동과 전통 교회의 중재안 .....	35
5.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의 교회개혁의 의미 .....	37
제 4 장 도심 지역 건강한 교회 개혁을 위한 준비 .....	40
제 1 절 건강한 교회 개혁을 위한 목회자의 준비 .....	41
1. 개혁으로의 소명의식 .....	41
2. 자신만의 목회철학과 비전 .....	43
3. 개혁 멤버 구성과 재정 마련 .....	45
4. 지역 선정과 건물 임대 .....	48
제 2 절 한국 도심 지역의 전반적 특징과 개혁 준비 .....	50
1. 권위의 상실로 인해 가속화되는 세속화 .....	51
2. 공동체의 상실로 인해 극대화되는 개인주의 .....	53
3. 신뢰의 상실로 인해 확산되는 교회에 대한 반감 .....	54
제 3 절 도심 지역 젊은 세대의 세대적 특징과 개혁 준비 .....	56
1. 도심 지역 젊은 세대의 정의와 일반적 특징 .....	56
2. 경쟁에 내몰린 세대 .....	59
3.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세대 .....	61
4.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폭발하는 세대 .....	63
제 4 절 도심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개혁 준비 .....	64
1. 디지털 감성 문화와 사역 .....	65
2. 다양한 취향을 즐기는 문화와 사역 .....	67
3. SNS를 통해 소통하는 문화와 사역 .....	69
4. 주말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문화와 사역 .....	70
5. 도심 지역 건강한 교회 개혁을 위한 탈권위적 리더십 .....	72
제 5 절 건강한 교회 개혁을 위한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 준비 .....	74
1. 기독교 세계관과 교리 양육 .....	75
2. 성경 교육 .....	76
3. 기타 실제적 양육 .....	77

4. 실천적 훈련 프로그램 .....	77
제 5 장 세상의빛교회 개척의 실제와 현황 .....	79
제 1 절 교회의 철학과 비전 .....	79
1. 목회철학의 형성과정 .....	79
2.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모토 : 신앙과 삶의 일치 .....	80
3. 세상의빛교회의 4대 비전 : 도시 미래 선교 복지 .....	83
제 2 절 세상의빛교회의 역사와 성장과정 .....	83
1. 개척 직전(2005-2006년) : 전통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고민 .....	84
2. 개척 초기(2006-2007년) : 한계의 극복 방안에 대한 실험의 시기 .....	85
3. 교회의 성장(2008년부터 현재까지) .....	86
제 3 절 다양한 시도들과 그 열매들 .....	88
1. 예배 .....	89
2. 소그룹 .....	90
3. 이웃봉사활동 .....	92
4. 다양한 기도회 .....	93
5. 다양한 봉사와 단기사역 프로그램 .....	94
6.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 .....	95
7. 다양한 사역의 동력 : 하나님 나라 관점의 말씀운동 .....	96
제 4 절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사역 평가와 발전 방안 .....	97
1. 세상의빛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한 평가 .....	98
2. 성장하는 교회의 4가지 동력을 기준으로 평가 .....	99
3. 좋은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에 의한 평가 .....	101
4. 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 .....	102
가. 열정적 영성과 영감 있는 예배 .....	102
나. 필요중심적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 .....	102
다. 지역 사회와 소통하여 복음의 교두보를 마련 .....	103

제 6 장 결론 .....	105
참고문헌 .....	109
Vita .....	116

# 제 1 장

## 서 론

###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에 유례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이다. 한국교회의 개신교 선교 역사는 하나의 모델이요 교과서이다. 역사가 짧기에 생기는 신학적 빈곤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세속화의 문제들을 인정한다 해도,<sup>1)</sup>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세계 어느 지역을 가도 이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 위대한 부흥을 이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기도의 열정, 말씀의 권위, 구령의 열정, 선교의 열매로 가득하다. 한국의 어느 교회를 가도 기도가 살아 있고,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고 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강조도 대단하고, 해외 선교에 사용하는 예산도 많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랑하며,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할 수만은 없는 것 또한 분명하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이미 10년,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한국교회는 1995년부터 정체를 거듭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조금씩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각종 통계에 나타난다.<sup>2)</sup> 그 기간 동안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의 열매들이었던 대형 교회들

1) 김세운, “한국교회 문제의 근원, 신학적 빈곤,”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김세운 외 19명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17-36.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12), 9-13. 200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995년 8,760,336명이었던 개신교 인구가 10년 후인 2005년에는 8,616,438명으로 1.6%(약 14만 명)정도 감소했다. 반면 천주교의 경우, 1995년 2,950,730명에서 10년 후인 2005년에는 5,146,147명으로 74%(약 220만 명)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종교별 교세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290개였던 개신교의 단체수가 3년 후인 2011년 232개로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불교는

에서 각종 추문들이 터져 나왔다. 숫자가 줄어든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아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들이 성장동력을 잃어버렸고, 사회에 미치던 선한 영향력이 실종되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사실 숫자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느끼는 체감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주위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다.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나아가지 않는 소위 ‘가나안’ 현상은 이미 도시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sup>3)</sup>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교회에 대한 염증을 느껴 신앙적 열정을 잃어버리고 예배 장소를 물색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성도들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다.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가 어떤 선한 기능을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거나, 목회자를 존경하고 인격을 본받고 싶어 하는 성도들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sup>4)</sup> 이러한 현상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급격한 변화, 혹은 발전을 해온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세대 갈등에 편승하여, 젊은 세대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난 70년간의 한국 굴곡의 역사를 한 인물을 통해 조명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두고 진보와 보수 논객들의

---

168개에서 265개로 증가하였다.; 권대익, “종교별 신뢰도 가톨릭·불교·개신교 순,” 한국일보, 2014년 2월 5일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가톨릭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28.0%), 개신교(21.3%), 유교(2.5%), 원불교(1.3%) 순이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뢰성 질문에서는 가톨릭이 32.7%, 불교 26.6%, 개신교 8.6%로 나타나 개신교에 대한 무종교인의 신뢰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양희송,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 (서울: 포이에마, 2014), 35-39, 73-93 참고..

4) 지호일, “한국교회 신뢰도 또 추락... 기윤실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 국민일보, 2010년 12월 15일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의 ‘2010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17.6%만이 ‘신뢰한다’(매우+약간)고 응답했다. 2009년 조사 때의 19.1%보다 1.5%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조사 때(33.5%)보다 크게 증가한 48.4%나 됐다.; 신동명, “목회자 신뢰도 ‘급감’ ... 도덕성 상실이 치명적,” 기독교타임즈, 2013년 4월 25일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4월 19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종교별 신뢰도에 따르면 천주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6.2%로 가장 많았고, 불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3.5%로 나타났으며,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 불신의 주요 이유로는 ‘이단이 많아서’라는 응답과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10.7%와 10.5%로 가장 높았고, △목사와 교인의 ‘언행불일치’ 때문이 9.4% △헌금을 강요하기 때문이 9.1% △목회자의 사리사욕 때문이 6.6%로 그 뒤를 이었다. 한목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변화가 시급한 분야로는 △교회 지도자들(37.1%) △교회의 운영(31.3%) △교인들의 삶(18.6%) △교회의 사회 활동(11.6%) 등을 꼽았다.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드러나는 세대 갈등이<sup>5)</sup>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 지난 130년 동안의 한국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진보적 시각이 젊은 세대를 통해 많이 나타난다. 교회에 염증을 느낀 성도들 중 심지어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많다. 가톨릭은 유독 한국에서 유래 없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sup>6)</sup>

필자는 개인적으로 지난 20여 년 간의 사역기간 대부분을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인 대학생, 직장인들, 즉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주로 사역했다. 이들 세대에서 나타나는 불신과 절망은 상상 이상이다.<sup>7)</sup>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입시로 인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젊은 세대들은 성인이 되어 교회에서 심각한 신앙적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교회들의 기복주의는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층에게 외면 받고 있으며, 새벽기도와 주일성수와 십일조 같은 율법주의적 신앙규범의 무조건적 강조는 그들에게 납득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속화되어 나타나는 교회의 각종 추문과 분쟁들은 그들을 세상으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비판의식으로 무장된 세상의 반기독교 정서는 인터넷을 주요 매체로 삼는 젊은 세대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한국 기독교가 곧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sup>8)</sup>

교회들은 반기독교적인 사회의 시각을 비판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반기독교적인 사회의 시각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것이 교회의 추문들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책망함으로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럴수록 젊은 세대들은 더 빨리 교회를 떠날 것이다.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에

5) 정철근, “국제시장 세대와 미생 세대가 공생하려면,” 중앙일보, 2015년 1월 5일자.

6) 한국의 종교현황, 9-13, 200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천주교 인구는 1995년 2,950,730명에서 10년 후인 2005년에는 5,146,147명으로 74%(약 220만 명)의 성장률을 보였다.; 윤근영, “천주교 인구 10년 전보다 74% 증가,” 연합뉴스, 2006년 5월 26일자.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1월1일 현재 천주교 인구는 514만6천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95년의 295만1천명보다 74.4%가 늘었다. 반면 개신교는 876만명에서 861만6천명으로 1.6%가 줄었다.

7)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171-172. 저자는 세계화와 인터넷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열린 사고와 표현의 자유'가 오늘날 신세대들 가운데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회는 이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에 환멸을 느낀 신세대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8) Ibid., 39-40.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 약 20년간의 혼란은 한국교회가 스스로 각성하여, 과거의 아름다운 유산을 미래로 계승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고민의 결과물로서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면 말이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도구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다른 주제들보다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래학자 최윤식의 *한국교회 미래지도*를 비롯하여 양희송의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을 비롯하여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더 많은 책들이 나왔다.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혁신적 교회인 노스포인트 교회의 담임목사인 앤디 스탠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온갖 위선 때문에 교회 특히 대형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단혀 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 ... 분명히 말하지만 내 생각에 모든 교회는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sup>9)</sup> 우리는 교회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하며,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는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결국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교회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공감하고 있다.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교회로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운동이 필요하다. 위기였던 교회가 새롭게 부흥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sup>10)</sup> 한국교회가 알팍한 자기변화에서 벗어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기초를 확고히 쌓고, 130년 역사 속에 혹 변화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과제라 믿는다.

숫자적 성장이 멈춰버린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더 이상 숫자적 성장의 패러다임에 갇히지 말고, 과거 한국교회가 부흥했

9) Andy Stanle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윤종석 역 (서울: 디모데, 2014), 11-12.

10) Elmer Towns and Douglas Porter, *세계 10대 부흥의 역사*, 박현식·장기혁 공역 (서울: 가리온, 2002), 26. Elmer Towns와 Douglas Porter는 부흥이 끼친 영향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독교 10대 부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1904년의 부흥 ② 제1차 대각성운동(1727) ③ 제2차 대각성운동(1780) ④ 각성운동(1830) ⑤ 평신도 기도부흥운동(1857) ⑥ 2차 세계대전 부흥운동(1935) ⑦ 미국 베이비 붐 세대의 부흥운동(1965) ⑧ 중세의 부흥운동(1300) ⑨ 개신교 개혁운동(1517) ⑩ 오순절, 부흥의 시작(A.D. 30)

던 방식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교회 평가의 기준들, 즉 교인 수, 예산, 건물이라는 자본주의적 기준들을 버리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하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sup>11)</sup>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다. 비현실적인 구호, 이를테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든가 ‘콘스탄틴 이전으로 돌아가자’식의 이상적인 구호들도 많다. 또한 목사 없는 교회, 교회나 제도가 없는 기독교를 주창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뭔가 새롭게 고쳐보자는 것이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안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다 묵살하고, 갑자기 교회가 박해 받던 시절, 건물을 세울 수 없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사도행전에 이미 교회의 지도자, 직분, 제도들이 나타난다. 지금에 와서 다시 아무 제도도 없는 교회, 혹은 교회 없는 신앙을 주창할 수는 없다. 주창해서도 안된다. 어떤 사회도 역사를 따라 흘러온 변화를 갑자기 부정하고, 전혀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 지금은 이상적 그림을 그릴 때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와 가까운지 정립하고,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교회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개척이라는 방법은 여전히 가장 매력적이다. 이제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이 시대의 교회개척은 복음이 없는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자립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교회 운동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10개 중에 한두 개가 남았다면 요즘에는 100개 중에 한두 개가 남는다고 한다. 1년에 수백 개의 개척교회가 없어진다고 한다.<sup>12)</sup> 반면에 청빙을 받아 사역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개척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오죽하면 이렇게들 말하겠는가? 그만큼 전통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말

11) Tom Rainer and Ed Stetzer, *교회혁명*, 궁인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12), 72-73.

12) 지호일, “미자립교회 ‘빈곤 악순환’ 고착화... ‘건강한 교회’로 양육책 시급,” *국민일보*, 2009년 7월 29일자. 감리교단의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매년 160개 정도의 교회가 설립되고 있으며, 60여개의 교회가 폐쇄된다고 한다.



이다. 무조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새로운 교회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또한 개척이 어려워진 만큼 더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 특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활동하는 문화의 중심지인 도시 지역에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말 철저한 기도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sup>13)</sup>

본 논문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도심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필자가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는 세상의빛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사역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주위에 많은 전통교회들이 교회의 갱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대안들을 찾아 실행하고 있다.<sup>14)</sup> 이런 대안들과 더불어 이 논문의 시도가 한국교회를 위해 작은 이바지라고 하게 되길 소망한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이 개척한 세상의빛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심 지역 건강한 교회 개척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세상의빛교회는 도시 한복판인 서울 서초동에 있다. 소위 젊은이들의 문화의 중심지 강남에서 매우 가깝고, 수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대형교회들이 밀집해 있으며,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은 곳이다. 어떻게 교회에 대한 반감이 가득한 도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다시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본 논문이 찾고자 하는 답이다.

##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개요

13) Timothy Keller and J. Allen Thompson, *Redeemer Church Planting Manual* (New York: Redeemer Church Planting Center, 2002). 이 매뉴얼을 보면 얼마나 철저히 개척을 준비해야 하는지 좋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14) 박성덕, “전통교회 정체 극복과 활성화 방안 - 에덴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4장; 최광영, “도시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주일 프로그램 사례분석과 방안” (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9), 5장; 유양옥, “전통적 교회에서 셀을 중심으로 한 교회활성화 방안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2), 4장 참고.

본 논문은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와 본 연구자가 세상의빛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현장에서 취득한 여러 사역 경험과 목회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기존 도심 지역에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하는 것에 한정되어 구성된다. 날로 도시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영적으로 황폐해져가며 세속화되는 기존 도심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는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에게 본 논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본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동기 및 목적과 연구 방법과 범위에 대해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하나는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도구로서의 건강한 교회이다.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에서 시작하여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전 3:15)’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몸(엡 1:22-23)’으로서의 교회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도구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 즉 백성, 땅, 주권의 개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영역(땅)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장에서 다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개척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교회 개척의 정의와 성경적 근거를 다루고, 이어 건강한 교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 개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도심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사역의 준비에 대해 다룬다. 먼저 목회자의 개인적인 준비에서 시작하여 도심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전반적 특징, 또한 도심 지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젊은 세대들의 세대적이고 문화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기 위한 준비의 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실제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건강한 교회를 위한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까지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도심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시도로 세워진 세상의빛 교회를 중심으로 도심 지역 교회 개척의 실재를 다룬다. 도심 지역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모토를 통해 한국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되 한계를 극복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개척을 준비했으며, 어떤 철학을 가지고 목회해 왔는지, 그 결과물들은 어떠했는지 평가한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논문의 요약과 결론적 제언으로 결론을 맺는다.

## 제 2 장

###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개혁자 닐 콜은 자신이 추구하는 교회는 건강하며 번식하는 교회이며, 그 교회의 특성상 작고 친밀하며 사역에 헌신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sup>15)</sup>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통해 구현되고 전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기독교 신앙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교회가 예수께서 세우신 원래의 건강한 모습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일에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시작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한다.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분명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은 교회가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다.<sup>16)</sup>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친히 그의 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다시금 교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분명히 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제 1 절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

김세윤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왜곡된 복음이해라고 말한다.<sup>17)</sup> 대표적으로

15) Neil Cole, *오가닉 처치*, 정성목 역 (서울: 가나복스, 2006), 60-61.

16) Edmund Clowney,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81.

17)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8-9.

왜곡된 복음이해의 두 양상을 꼽으라면 구원파적 복음과 기복주의적 복음이라 할 수 있다. 왜곡된 복음에 대한 이해는 현세적 책임을 거부하고 내세적인 영생만을 추구하는 기독교, 제자는 만들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 재화와 용역의 소비자만 양산하는 복음을 만들어냈다.<sup>18)</sup> 이렇게 왜곡된 복음에 기초한 교회는 왜곡된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즉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지 못하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재현해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 왜곡된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의 한국교회라 할 수 있다. 결코 기독교적이라 말할 수 없는 일부 한국교회의 모습은 기독교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 많은 기도와 말씀의 집회, 큰 신학교들의 커리큘럼, 성장한 교회환경 등을 고려하면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성경이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구현하는 공동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교회에 대해 고민해보고, 교회의 회복을 꿈꾸어야 할 것이다.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는 그들의 책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두 가지 중심을 복음과 공동체로 제시한다.<sup>19)</sup> 교회는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구현하는 공동체로 끝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이다. 공동체는 그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복음을 잘 구현해내는 공동체의 두 축을 생각하며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일은 건강한 교회를 21세기 한국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복음의 진리와 복음이 구현된 공동체는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축이다.<sup>20)</sup> 필자는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고찰하기 위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통적인 교회론의 표현 중 두 비유인 '진리의 기둥과 터'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 1.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앤디 머레이는 교회 역사를 통해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교회가 로마에서 합법화되면서 지독하게 조직화되어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18) Scot McKnight, *예수 왕의 복음*, 박세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22.

19) Tim Chester and Steve Timmis, *교회다움*, 김경아 역 (서울: IVP, 2012), 21.

20) Ibid., 21-26, 31-69.

처음에 설명할 수 없던 것이 제도로 바뀌고, 교회는 운동보다는 체제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2천년이 지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금도 교회는 본래의 정체와 목적과 열정을 되찾고자 씩씩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1)</sup>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돌아가려고 늘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연약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변질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려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를 의미하기 위하여 복음서 저자들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벨코프에 따르면 구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는 구약의 ‘카할’과 ‘에다’이다. 카할은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모인 모임을 의미한다.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는 의미의 ‘에다’는 약속에 따라 모이는 모임을 의미했다. 에다는 헬라어의 ‘쉬나고게’로 주로 번역이 되었으며, 카할은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었다.<sup>22)</sup> 벨코프는 홀트의 의견을 제시하며 카할이라는 단어가 에다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후에 카할의 번역인 에클레시아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회중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말한다.<sup>23)</sup> 1세기에 이미 쉬나고게는 이스라엘의 회당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상적 공동체로 간주된 회중의 명칭은 에클레시아가 되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헬라어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카할’을 번역한 말로 이미 알려져 있던 용어이다(신 23:1-3). ‘카할’은 신명기에서 ‘총회’로 번역되었고, 회중을 의미한다. 마이클 호튼은 예수께서 구약성경의 ‘카할’의 번역으로 에클레시아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의 사역을 통해 그 용어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24)</sup> 즉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카할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지만, 에클레시아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구성된 이스라엘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에클레시아가 어원적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

21) Stanle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60.

22)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역 (파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811.

23) Ibid., 812-813.

24) Michael Horton, *개혁주의 조직신학*,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713-714.

은 회중이라면 교회는 ‘예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모인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에클레시아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그리고 구약의 카할의 번역이긴 하지만, 문자 그대로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앤디 머레이는 헬라 문화권에서의 에클레시아가 공무의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불려나온 군인들의 모임을 가리키던 말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에클레시아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 내지 회합이었으며, 특수한 장소를 뜻한 적은 없고, 오직 특수한 모임의 의미로만 쓰였다고 말했다.<sup>25)</sup>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생각할 때, 이것은 특정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을 떠올려야 한다. 교회는 장소나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신앙고백과 그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특수한 목적, 즉 사명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개념인 것이다. 물론 구성원들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장소나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사도들의 서신에는 유대인들의 회당과는 분리된 가정이라는 장소가 등장하고(롬 16:1-3, 골 4:15), 이미 조직으로 발전된 직분들의 체계화가 시작된다(행 6:1-6, 딤후 3장). 그렇지만 교회는 장소나 조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공동체이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의 세속 문서에서나 성경 속에서 항상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를 의미했다. 따라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세상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비유는 ‘진리의 기둥과 터’와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인데, 복음과 공동체라는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벌코프는 아주 간단하게 4가지로 교회에 대한 비유를 소개했다.<sup>26)</sup> 그 네 가지 중 하나가 바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이다. 마이클 호튼은 그의 책에서 교회를 성경에서 제시하는 8가지 표현으로

25) Stanle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65-66.

26) Berkhof, *조직신학 (하)*, 813-814.

설명했다.<sup>27)</sup> 벌코프는 두 가지 개념 모두를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제시하고, 호튼은 ‘그리스도의 몸’만을 제시한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온다. 성경에 한 번 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 설명은 이 시대에 교회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설명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유일한 진리를 소유하고 전파하는 유일한 모임이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정치인들의 모임이나 도덕 선생들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일 수 없다.

벌코프는 이 표현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에 대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는 요새이며 진리를 변증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sup>28)</sup> 벌코프의 표현은 진리를 고수하고 싸우는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교회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에 의해 계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복음을 유일한 진리로 계시 받은 유일한 기관이다. 사실 이와 동일한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고(요 14:6),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다고 하셨다(요 18:37). 그 진리는 이 세상에서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전한 진리, 즉 복음은 초월적이며,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소식과 견줄 수 없는 소식이었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진리인 복음의 소식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전파해야 한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는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활발히 연구하며 가르치고, 그 복음을 실현하는 멈추지 않는 운동력이 그 안에 존재하는 교회이다.

###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지금부터 살펴볼 또 다른 교회에 대한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다.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교회를 그리스도와 별개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sup>29)</sup> 이러한 면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진술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한다고 믿는다.

27) Horton, *개혁주의 조직신학*, 716-740.

28) Berkhof, *조직신학 (하)*, 814.

29) Clowney, *교회*, 14-17.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다. 이 표현은 교회의 핵심적인 두 축인 복음과 공동체 중 공동체를 강조하며,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표현이다. 에릭슨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교회는 현재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장소라는 의미이며,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합을 강조하며,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신자들의 상호간의 연결관계를 의미한다고 정리한다.<sup>30)</sup>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공동체는 ‘내 백성’ 혹은 ‘하나님의 백성(출 6:7, 레 26:12, 히 11:25, 벰전 2:10)’이라고 표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율법으로 표현된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때(엡 1:20-23, 고전 12:6 이하, 골 1:18, 24 등), 그것은 분명히 교회의 존재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예수를 주(主)로 고백하고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며,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진 몸, 즉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연택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을 맡기셨고, 교회의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스리고 돌보시는 것이라고 말한다.<sup>31)</sup>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전권대사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존재해야 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의 개개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몸의 지체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sup>32)</sup>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도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다양한 지체들의 하나됨을 통해 실현되는 교회’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유일한 규범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정신인 하

30) Millard J. Erickson,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36-38.

31)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제자, 1997), 105.

32) Erickson, *교회론*, 37-39.

나눔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복종을 통해 실현한다(엡 5:21).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 내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통해 나타나는 몸의 지체들의 상호 존중과 복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다양한 은사와 하나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몸이 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교회에서는 어떤 위계가 존재할 수 없다. 질서가 존재할 뿐이다. 모든 성도가 수평적 관계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 4.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

지금까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성경의 두 비유, '진리의 기둥과 터'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았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선포했다.<sup>33)</sup> 예수는 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며 회개를 통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sup>34)</sup>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sup>35)</sup>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취하시며, 인류를 그 나라로 초청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의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다. 이 세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하신 전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운동이었다. 교회는 모든 세상의 제약을 초월하여 이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함의 비결이다. 널 풀은 하나님 왕국은 온데간데없고 부패한 가짜 왕국이 들어섰다고 지적한다.<sup>36)</sup>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교회의 조직과 건물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 복음의 진리 자체와 그 복음을 구현하

33)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45.

34) Ibid., 52.

35) Ibid., 29-30.

36) Neil Cole, *오가닉 처치*, 156.

는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도구인 교회는 믿어야 할 내용, 즉 복음의 진리에 확고해야 한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건강한 교회는 이 진리를 소유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힘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도구인 교회는 그 운동이 이루어야 할 목표이자 존재의 방식인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가 수평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앤디 스텐리는 원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전통과 의식과 위계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한다.<sup>37)</sup> 이 복음의 메시지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삶에 옮겨 놓은 공동체를 통해 교회는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다. 복음과 공동체라는 두 단어는 합하여 복음의 공동체라는 서로를 보완하는 용어를 만들어낸다.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며, 모두가 믿어야 할 진리이다. 공동체라는 말은 그 소식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임이며, 복음이 구현된 외형적 모습이다. 따라서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란 '복음의 진리를 공동체적 삶으로 구현하는 공동체'이다. 복음에 확고하고, 복음이 삶의 방식으로 구현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다.

## 제 2 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건강한 교회

스캇 맥나이트는 복음주의의 가장 큰 선념 가운데 하나는 각 사람이 거듭나거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지만, 복음주의자들이 복음과 구원이라는 말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한다.<sup>38)</sup> 그는 복음주의자들이 개인의 구원을 복음의 전부로 착각하는 것이 교회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그는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설득의 방법으로 축소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복음은 예수 이야기, 나아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로부터 이해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sup>39)</sup> 따라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복

37) Stanle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72-73.

38) McKnight, *예수 왕의 복음*, 41-43.

39) Ibid., ch.2 참고.

음의 공동체'라는 용어와 더불어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동의한다.<sup>40)</sup>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의심할 여지없이 공관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예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르만 리델보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만큼 중요한 어떤 다른 주제를 언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sup>41)</sup> 따라서 복음 자체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1. 하나님 나라와 교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먼저 고찰하고, 교회와의 관계를 살펴 보도록 하자. 헤르만 리델보스는 하나님 나라가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요약하고 확증하는 하나님의 언약사상이나,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사상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sup>42)</sup> 성경 전체의 중심 개념이며,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자체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조지 래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하르낙(Adolf Von Harnack)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정신 속에 경험되는 것, 영혼에 존재하는 내적 힘으로 정의했다. 도드(Charles H. Dodd)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것,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역사 끝 날에 도래할 초자연적인 나라로 정리했으며, 가톨릭은 유형교회, 개신교회는 무형교회, 또한 여러 신학자들이 이상적인 인간사회라고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sup>43)</sup> 반면 김세윤은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 뉘앙스를 가진 용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 영역적, 대상적인 뉘앙스로 파악한다.<sup>44)</sup> 피터 레이하르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세상의 질서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40) 주성준, *예수와 하나님 나라* (서울: 혜안, 1995), 61.

41) Herman Ridderbos,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솔로몬, 2008), 15.

42) Ibid., 63.

43) George E.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박미가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17-19.

44)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47.

제림 때 충만히 계시되어지고 확립되어질 만물의 새 질서라고 정의했다.<sup>45)</sup>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자적 정의보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다. 필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심 개념들을 제시하는 것이라 믿는다. 필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개념으로 백성과 땅과 주권의 개념을 제시했다.<sup>46)</sup> 그레엄 골즈워디는 구약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 준 매우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의 책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과 신약을 통일성 있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게 해 주었다.<sup>47)</sup>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다스리는 왕, 다스림을 받는 백성, 다스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sup>48)</sup> 이러한 제안은 실상 김세윤의 세 가지 누앙스와 같은 것이다. 결국 다스림을 받는 대상인 백성, 다스림의 영역을 의미하는 땅, 다스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개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이 땅에 실현되고 예수의 제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개념이며, 교회는 인간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시적 조직이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의견들도 있다. 심지어 교회는 예수께서 예상했던 영역 밖의 것이었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조금 온건한 학자들조차도 예수께서 지향했던 공동체는 이상적인 공동체였다고 주장한다.<sup>49)</sup> 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공동체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만, 예수께서 이루신 공동체는 복음서에서 보듯이 이미 이상적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설교를 통해 언급하신 교회는 결코 온전한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었다. 교회는 예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45) Peter Leithart, *하나님 나라와 능력*, 안정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39.

46) 이종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관통* (서울: 넥서스크로스, 2014), 20-30 참고.

47) Graeme Goldsworthy, *복음과 하나님 나라*, 김영철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0), 51.

48) Ibid., 57-58.

49) Ridderbos, *하나님 나라*, 432-461.

전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이상적 교회가 아니라 경험적 교회이며,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sup>50)</sup>

조지 래드는 예수의 사역 속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다스림이 사람들에게 응답할 것을 촉구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한다고 말한다.<sup>51)</sup>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로 세상에 나타났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다스림의 결과였고, 동시에 교회라는 것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공동체이며,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도구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레슬리 뉴비긴은 교회를 천국의 맛봄, 도구, 하나님의 통치의 표지로 설명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염두에 둘 때 매우 옳은 지적이라 할 수 있다.<sup>52)</sup>

지금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전에 이미 예고하셨던 교회, 또 그 이후에 이 땅에 생겨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도구라고 정리했다.<sup>53)</sup>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세 가지 요소인 백성, 땅, 주권의 개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 2.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볼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헤르만 리델보스는 하나님 나라(혹은 왕국)를 의미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으로 정의하며,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고 바실레이아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라고 했다.<sup>54)</sup>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성경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

50) Lesslie Newbigin, *오픈 시크릿*,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2), 196.

51) George E. Ladd, *하나님 나라*,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538-539.

52)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 홍병룡 역 (서울: IVP, 2010), 179-181.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Newbigin이 교회를 도구로만 보아서 안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도구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53) Ladd, *하나님 나라*, 542-547.

54) Ridderbos, *하나님 나라*, 459.

도의 회중과 몸, 성령의 교통으로 정의한다고 말하면서,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한다고 말한다.<sup>55)</sup>

교회는 모인 자로서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모으는 자로서의 교회여야 한다.<sup>56)</sup>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면 건강한 교회는 끊임없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예배를 통해, 성경공부 등의 양육을 통해,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한다(출 3:10, 6:7, 레 26:12, 신 29:13, 삼상 9:16, 대상 17:9, 사 1:3, 렘 4:22, 요 1:12, 행 18:10, 고후 6:16, 계 21:3).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한다(왕상 8:33-34, 왕하 11:17, 대하 6:24, 느 1:10, 시 3:8, 단 2:14, 뱀전 2:9-10).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선교를 성취하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성부께서 파송한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한다.<sup>57)</sup>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고후 5:18-19).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인 대안적인 문화도 만들어가야 한다.<sup>58)</sup>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사명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마 28:19-20, 막 16:15-16, 눅 24:46-48).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면 먼저 아직

55) Clowney, *교회*, 29.

56) Ibid., 179-185.

57) Ibid., 179.

58) Darrell Guder, *선교적 교회*, 정승현 역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3), 183.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지역까지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한다(마 24:14, 행 13:48).

### 3. 하나님의 통치영역(땅)을 바라보는 교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중 두 번째인 '땅'의 개념으로 교회를 표현해 보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구현의 도구라면 교회를 '땅'의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땅'이라는 개념을 통해 교회를 정의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반드시 통치의 대상과 더불어 통치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릭슨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단순히 교회 존재 자체에 있지 않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의도 중 첫째가 땅 끝까지 전도하는 것이라고 했다.<sup>59)</sup> 하지만 전도는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테털 구더는 부르심에 신실하기 위하여 반드시 특정한 환경 안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하도록 현장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현장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0)</sup>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서의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려는 영역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하는 사명의 영역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늘 땅이 제시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신 6:10, 수 11:23, 느 9:22-25, 시 78:55, 135:10-12).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한 이야기는 구약의 가장 주된 이야기이다.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땅을 명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매우 많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 세대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안된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같이 신약의 교회도 역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59) Erickson, *교회론*, 61-66.

60) Guder, *선교적 교회*, 48.



통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레 18:3-4, 롬 12:2).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구로 드러야 하며(롬 6:13),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한다(고전 10:31). 바울의 서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끝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적용한다(롬 6:3-4).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마 6:9-10).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에서부터(롬 6:12-13) 모든 관계와(엡 5:21-6:9, 골 3:18-4:1) 이 세상 만물이다(엡 1:20-23).

스티븐 매키아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다.<sup>61)</sup>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인 ‘땅’을 바라보는 교회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종말론적이며 선교적인 교회, 즉 세상을 향하는 교회이다.<sup>62)</sup> 건강한 교회는 땅과 관련없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땅을 새롭게 하려 하신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 택한 플랫폼이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한 공동체를 넘어서서, 자신의 인생을 넘어서 교회가 파송된 이 세상을 교회의 요소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이 땅에 대해 늘 고민해야 한다.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임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영적 권세,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능력이 발산하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발산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나아오도록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구현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대위임령의 진정한 의미이다(마 28:19-20).

61) Stephen A. MacChi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261.

62)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 178-179.

#### 4.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여야 한다. 조엘 비키는 예수께서 ‘내 교회(마 16:18)’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한다.<sup>63)</sup> 바울도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복적으로 말한다(엡 1:22, 골 1:18). 조지 래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다.<sup>64)</sup>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존재 방식을 통해 증거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새 질서를 드러내는 교회라는 말이다. 데럴 구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 그의 선교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sup>65)</sup>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구현하려는 이야기이다. 신약의 교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라고 명령하신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이다. 사도들의 서신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구현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한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교회의 구성원들의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는 조직과 의사결정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에 맞게 가장 좋은 길을 찾

63) John MacArthur 외, *솔라 에클레시아*,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39-41.

64) Ladd, *하나님 나라*, 539-542.

65) Guder, *선교적 교회*, 158.

아야 한다.

테럴 구더는 교회가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 안에 삶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다고 말한다.<sup>66)</sup>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과 서신서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가르쳤던 율법의 연장이며, 갱신이요, 완성이다(마 5:17-18).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성취하신다(갈 5:16-17).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실현하며, 그 결과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세상에 제시하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다.

#### 5.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건강한 교회

과거에 유럽과 서구교회들, 이제는 한국교회까지 급격한 쇠락을 겪고 있다. 에디 깅스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는데, 교회 출석률의 급감과 주류 교파의 쇠락 현상이다.<sup>67)</sup>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지금의 기성세대가 다녔던 전통적인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다. 영적으로 타락했으며,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널 콜은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잠자고 있다고 말한다.<sup>68)</sup>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정립해야 하며, 그것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건강한 교회를 정리해 보자.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는 도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중요한 교회의 관심사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들이 모여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인 것이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서의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영역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

66) Guder, *선교적 교회*, 159.

67) Eddie Gibbs, *텍스트 처치*,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22-29.

68) Neil Cole, *교회 3.0*, 안정임 역 (경기: 스텝스톤, 2012), 45.

들을 불러 모아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땅에서의 사명을 고민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는 영역임을 인식하고 고민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교회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매우 무관심해져 가고 있다. 그저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교회는 타락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는 사명으로서의 땅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적으로 평강(shalom)을 누리게 되며, 외적으로 평강(shalom)을 확장하게 된다. 교회는 늘 나아가고 있는 땅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여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사명을 생각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여야 한다. 교회의 구성원 개개인, 나아가 공동체와 그 안에서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김세윤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요, 군사, 일꾼으로 표현된다고 말했다. 교회는 사랑의 이중계명 실천으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도구가 된다. 거짓과 싸우고 진실을 전파하고, 불의와 대적하여 의를 행하고, 중오를 극복하고 사랑을 행하는 도구가 된다고 했다.<sup>69)</sup>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구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의 모습을 띤 교회를 통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표현된 사회적 약자들이 교회를 통해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신 14:29, 24:19-21, 26:12-13, 램 22:3, 약 1:27).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69) 김세윤, *예수와 바울*, 51.

## 제 3 장

###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의 교회개혁의 의미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이며, 복음이 삶의 방식으로 구현되는 ‘복음의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교회이다. 나아가 복음 자체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교회를 현실 세계 가운데 세워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기존의 전통교회들의 회복과 갱신이며,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건강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통교회의 회복과 갱신이 이 시대의 필수적인 사명이며, 나아가 건강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 믿는다.

본 장에서는 교회 개혁이란 무엇이며, 교회개혁의 두 가지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한 후, 새로운 교회에 대한 요구가 빚발치는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개혁의 의미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 제 1 절 교회개혁의 정의와 성경적 근거

##### 1. 교회개혁의 정의

이상규는 교회개혁이란 보통 교회가 없는 지역이나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sup>70)</sup> 민장배는 교회개혁을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거나, 혹은 교회가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70) 목회와 신학 편집부, *교회 개혁*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0), 20.

사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행위라고 정의했다.<sup>71)</sup> 사실 교회개척에 대해서 용어적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교회개척은 교회가 없거나 희소한 선교적 상황에서 너무나 필수적인 사역이다. 필자의 선친께서는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하던 1970년대와 80년대에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에 교회가 없었던 지역에 여러 교회를 개척하셨다. 그 중 두 곳은 아버지의 사역을 계승한 목회자들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복음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도 2006년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선교사의 사역과 본 교회의 단기의료사역을 통해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하여 어떤 교회도 없었던 필리핀 라구나 주에 다섯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보았다. 교회개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믿음을 갖게 되며, 또한 얼마나 많은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지를 정말 많이 체험하였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선교적 상황이 아닌 21세기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 팀 켈러는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 1980년대에 이미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했다.<sup>72)</sup> 필자의 주변에도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도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자를 위한 특별한 사역을 위해 교회가 많이 있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경우가 여럿 있다.

교회개척은 단순히 교회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거나, 사역지가 없는 목회자가 사역지를 만드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회개척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화하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 2. 교회개척의 성경적 근거

마이클 호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둘을 혼돈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sup>73)</sup>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교회 없이 구현될 수는 없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후 결국 교회를 세우겠다고

71) 민장배, *교회개척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19.

72) Keller and Thompson, *Redeemer Church Planting Manual*, 7-19.

73) Horton, *개혁주의 조직신학*, 713.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복음의 공동체인 지상의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6:18).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존재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가장 일차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김종환과 다니엘 산체스와 에비 스미스는 교회개척에 대한 성경적인 이유들로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그 중 첫째가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이다.<sup>74)</sup>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약속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한다. 민장배는 신약 최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개척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sup>75)</sup>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교회는 자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흠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흠으셨다는 증거이다. 마치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흠어져 온 들판을 민들레꽃으로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흠어진 교회들을 통해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 가신다. 결국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신 것이다.

교회개척을 통한 복음의 확장의 기초를 놓은 사역자요 모델은 사도바울이다.<sup>76)</sup>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교회가 어떻게 세계로 퍼졌는지 과정을 보여준다. 사도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사도바울이 지나간 곳에는 가정에서 모이는 형태의 교회가 생겼다. 교회개척은 복음 전파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가장 위대하게 수행한 사람이었다.

교회개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로마 제국의 경계선 안에서 로마의 본토와 속주들 안에서 활동했고, 로마식 지방 행정구역 구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롬 16:5, 고전 16:15).

74) Daniel Sanchez and Eby Smith and 김종환, *재생산하는 교회*, 박성창 역 (서울: 서로사랑, 2006), 8.

75) 민장배, *교회개척학*, 22.

76) Ibid., 24.

아가야의 첫 열매, 마게도나의 첫 성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로마 제국 전체를 세계로 보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 했으며, 그 결과로 각 지역에 고루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이다. 바울이 로마 제국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전략이나 지역 분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는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시 세계 전체로 인식되는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롬 1:13, 15:23, 28).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은 점차 새로운 지역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고(행 16:6-10), 바울에 의해 새로 개척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교회사적으로도 교회개척은 지난 2천 년 동안 교회 역사를 이끌어 온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으며, 20세기에는 새로운 종족을 발굴하여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개척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교회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교회개척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회개척을 기피하려는 현상도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데 있어 교회는 중요한 도구였다. 한국의 경우 교회의 숫자와 복음화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sup>77)</sup> 교회가 많아지면서 교회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교회개척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역이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준비 없는 난립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임을 성경이 증거하며<sup>78)</sup> 교회사가 증거하기 때문이다.

## 제 2 절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의 교회개척의 의미

문제는 이제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가 없는 도서산간 지역이나 새롭게 개발된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교회개척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나아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6만 여개 이상의 교회가 있으며, 도서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77) 한국컴퓨터선교회, “한국의 복음화 지도(1~16회),” 국민일보, 2006년 8월 15~17, 20~25, 27~31, 9월 15 일자 참고.

78) 민장배, *교회개척학*, 36.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가 있다. 또한 도심 지역에는 교회가 건물마다 난립한 상태이다. 심지어 신도시 지역에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난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79)</sup> 단순히 교회 숫자와 지역을 놓고 보면 교회개척이 장려될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많은 신학교들의 난립을 통해 배출되는 목회자들이 사역할 곳이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좋지 않은 예들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요구들이 일어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역적 요구들을 기존교회로만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회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 1. 새로운 지역으로의 교회개척

새로운 지역으로의 교회 개척은 그야말로 교회가 없거나 부득이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 개척의 패러다임은 새로운 지역으로의 교회개척이었다. 교회가 없는 선교지나 교회가 부득이 필요한 지역이 끊임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도 1980년대까지는 목회자의 개척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예수의 대위임령은 역시 새로운 지역으로의 교회개척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다(마 28:18-20). 교회들은 예루살렘 박해(행 7-8장)이후 흩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역으로의 교회개척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도바울을 통해 지역으로의 교회개척이 본격화되었다. 그는 구브로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했다. 패트릭,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등은 바울의 후예들이다. 세계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으로의 교회개척이 이루어졌다. 20세기에 이른바 미전도 종족을 향한 교회개척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미전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sup>80)</sup>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다. 초기 선교사들은 지역을 분할하여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sup>81)</sup> 이러한 지역분할 정책은 한국을 복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 이제 한국은 거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

79) 박준호, “판교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교회 개척전략 - 판교 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29.

80) Stephen Neill, *기독교 선교사, 홍치모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579-582.

81)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600-607.

널 정도가 되었다. 한국은 선교사들로부터 너무나 빠르게 독립했고, 신학교를 통한 목회자 양성도 스스로 가능하게 되었고, 경이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국에 교회가 세워진 모범적인 선교의 모델이다. 교회개척은 한국교회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 복음 전파를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였다.

사도바울을 통하여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새로운 지역으로의 교회개척 사역은 20세기까지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였다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한국 개신교회의 130여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역시 새로운 지역으로의 교회개척은 하나의 시대적 사명이었으며, 압도적으로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이였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명에 헌신했으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의 100년 역사를 빛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이 주어진다. 지난 20세기는 미전도 지역이 여전히 많았던 시대이다. 이제 미전도지역이 대부분 사라진 21세기에 또 여전히 새로운 지역으로의 교회개척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가? 특별히 한국과 같이 이미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존재하며, 심지어 도시 지역에는 교회가 과밀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교회개척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인가? 새로운 지역으로의 교회개척이 이미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교회개척은 이제 박물관에 들어갈 유물이 된 것일까? 그렇다면 여전히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교회들에는 어떤 정당성이 부여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 2. 새로운 세대와 대상으로의 교회개척

교회개척에 대한 또 다른 패러다임은 새로운 세대와 대상으로의 교회개척이다. 민장배는 교회개척의 중요성을 신학적 측면, 선교학적 측면, 종말론적 측면, 인구증가적 측면, 교단 성장적 측면, 유무형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측면, 다양한 계층의 복음화 측면, 지도자 양성의 측면 등 8가지로 제시했다.<sup>82)</sup> 그 중 다양한 계층의 복음화 측면에서 그는 전문화를 추구하는 21세기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다양한 계층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교회가 개척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83)</sup>

새로운 세대와 대상으로의 교회개척은 21세기에 필수적인 일이다. 명성훈은 어느 세대에나 그 세대에 맞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sup>84)</sup> 이렇듯 교회개척에는 이미

82) 민장배, *교회개척학*, 33-45.

83) Ibid., 43-44.

두 패러다임이 존재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교회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 교회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수도원 운동,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 대각성 운동, 오순절 운동 등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세대와 대상들을 향한 교회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새로운 세대와 대상으로의 교회개혁은 기존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죽어가는 교회, 타락해가는 교회에 신성한 영적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새로운 세대와 대상으로의 교회개혁은 형식화된 신앙에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기존 교회에도 신선한 자극을 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다. 명성훈은 교회개혁이 기존교회에 건전한 자극과 도전을 준다고 했다.<sup>84)</sup> 김종환과 다니엘 산체스와 에비 스미스는 일반적으로 기존교회들이 10년이 되면 성장을 멈추는 경향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들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86)</sup> 새로운 세대와 대상으로의 교회개혁은 새로운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도 한국에는 계속해서 교회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개혁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하나는 새롭게 개혁된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른바 생존전략이다. 다른 하나는 새롭게 개혁된 교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많은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 박은조는 개혁 후 생존의 대안으로 분립개혁을 제시하기도 했다.<sup>87)</sup> 또한 개혁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많은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 각종 전도와 양육을 위한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으며, 좀 더 본질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세미나 등도 열린다.

두 번째 질문인 '새롭게 개혁된 교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어떤 답변을 내어 놓을 수 있는가? 즉 21세기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가? 단순히 개혁된 교회의 생존이 교회개혁의 목적일 수는 없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의 도구가 교회라면 과연 신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 시대의 교회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84) 명성훈, *교회개혁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 1997), 30-32.

85) Ibid., 26-29.

86) Sanchez and Smith and 김종환, *재생산하는 교회*, 15.

87) 박은조, "교회개혁 설립 전략에 대한 연구 -분당샘물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59.

예수의 대위임령은 모든 민족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새로운 세대와 대상들, 기존의 사고방식과 의사소통방식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세대와 대상에게 적용한다면 교회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다. 바로 새로운 세대와 대상으로의 교회개혁이다. 레슬리 뉴비긴은 1939년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였다. 1969년 그가 다시 영국에 돌아갔을 때 영국은 이미 선교지가 되어 있었다고 술회한다. 그는 교회가 지역(기독교화된 지역이 아니라, 대위임령에 나오는 모든 민족과 가까운 지역)에 파송된 교회여야 한다는 선교적 교회의 모티브를 제공했다. 1995년부터 시작된 북미학자들의 네트워크(GOCN)는 뉴비긴의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회 운동을 본격적으로 제안했다.<sup>88)</sup> 그는 영국의 교회가 이제 새롭게 사역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 뿐 아니라 이미 수백 년동안 지속된 서구개신교회가 새로운 사역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역에 대해 더 이상 전통적인 복음 전파의 방식, 교회의 사역 방식이 통하지 않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와 대상들을 만나고 그는 충격에 빠져 새로운 교회 운동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의 기존 교회들도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복음전파사역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새롭게 개혁되는 교회들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담아 새로운 세대와 대상으로의 교회개혁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점점 세대 간의 격차의 심화, 새터민들과 외국인들의 유입 등으로 다원화되면서 특수한 사역대상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와 대상으로의 교회개혁은 이 시대가 고민하고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개혁의 패러다임이다.

### 3. 새로운 교회에 대한 요구

지금까지 두 가지 패러다임의 교회개혁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현상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요구들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서방,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운동이 활발히 진행됐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새로운 교회 운동으로 미셔널처치를 제시했다.<sup>89)</sup> 새로운 교회 운동의 핵심은 이머징처치와 미셔널처치이다. 미셔널처치(선교적 교회)와

88) 이상홍, “공동체를 세우는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의 공동사역이다,” *목회와신학*, 2012년 5월호, 49.

89) Micheal Frost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 IVP, 2009), 43.

이머징처치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머징처치는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며 사역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머징처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교회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sup>90)</sup> 미셔널처치는 지금까지의 교회들을 제도적인, 혹은 제도화된 교회로 보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새로운 교회를 모색하자는 운동이다. 미셔널처치의 주창자들은 20세기까지의 교회를 교회가 사회와 문화의 중심에 있다는 사고 속에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크리스텐덤의 유산으로 보고,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진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새로운 교회를 미셔널처치라고 부르는 것이다.<sup>91)</sup> 새로운 교회 운동들은 기존의 교회의 존재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교회 운동들은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며,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이머징처치나 미셔널처치는 모두 새롭게 변한 세상, 특히 교회가 보냄을 받은 상황에 맞추어 교회가 새롭게 사역과 존재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교회론을 소개하는 책들도 쏟아지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한 실험적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sup>92)</sup> 새로운 실험적 시도들은 분명 기존의 교회와 교회의 존재 방식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반성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교회 안에도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지향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다. 이른바 카페 교회 같은 건물 없는 교회를 지향하는 시도들부터, 술집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공연장을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며 이 시대 문화와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sup>93)</sup> 게다가 최근 20년 내에 한국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비판하는 기독교 언론들도 여럿 등장했다. 이 언론들은 교회에 비판을 가하며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분명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목소리이며 정신이다.

90) Scot McKnight, “이머징처치의 5가지 흐름들,”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2007년 2월호), 35.

91) Micheal Frost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43-67를 참고하라.

92) Ibid., 11-14를 참고하라.

93) 송창근, “다음 세대에 예수의 빛을 비추는 블루 라이트 처치,” *목회와 신학*, 2012년 6월호, 90-97.

새로운 교회론들의 등장과 새로운 실험적 시도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 언론들을 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온당한 신학적 평가도 있어야 할 것이며, 한국교회 안에 적용하기 위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들이 주는 확고한 메시지는 지금의 한국교회에 뭔가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이다. 이 시대에도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 안에 가정교회나 셀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다.<sup>94)</sup>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도들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교회 운동들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고민하고, 그 운동들이 제안하는 변화를 수용하려는 유연한 정신이 필요하다.

#### 4. 새로운 교회 운동과 전통 교회의 중재안

캘리포니아 주의 리디머교회 담임목사인 짐 벨처는 전통교회와 이머징처치를 조화하는 제 3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전통교회와 이머징처치의 장점을 조화한 새로운 개념의 교회를 써 에스 루이스의 용어를 차용해 깊이 있는 교회(Deep Church)라고 불렀다.<sup>95)</sup> 전통교회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교회에서도 그 점은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몇 십년 사이에 등장한 이머징처치가 모든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짐 벨처는 양 교회간의 장점을 조화한 새로운 교회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회모델은 이머징처치를 제안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존의 전통교회가 내 놓은 중재안이다.

영국 셰필드의 교회개혁네트워크 '클라우드 하우스'의 공동 설립자인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는, 자신들의 책 *교회다움*에서 '복음과 공동체'를 교회의 핵심적인 두 가지 원리로 제시한다. 이러한 두 가지 원리 -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집단으로서의 공동체 - 에서 뿌리내린 교회를 가리켜 'total church'로 제시한다.<sup>96)</sup> 그들은 전통적인 교회와 새로운 교회 운동은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공동체를 둘 다 놓치지 않는 중재안을 제시한다. 오늘날 전통 교회의 경우 공동체성의 문제와 시대의 문화 수용의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 이머징 처치의 경우 복음의 정의나 교리적 정립에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팀 체스

94)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30-31.

95) Jim Belcher, *깊이 있는 교회(Deep Church)*, 전의우 역 (서울: 포이에마, 2011), 26.

96) Chester and Timmis, *교회다움*, 21.

터와 스티브 스미스는 복음과 공동체 간의 조화를 강조한 ‘Total Church’를 통하여 전통교회와 이머징처치 간의 조화를 이룬 새로운 교회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의 시도는 한국교회에도 중요한 의미를 준다. 한국교회에 철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 교회를 다 부정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다. 한국의 전통 교회들은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서 복음 전파의 방법을 찾고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교회 운동이 한국교회에도 많이 소개되었다.<sup>97)</sup> 새로운 교회 운동은 신학적인 검증도 필요하며, 이 시대 한국의 교회에서 복음 전파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려 한다면 한국의 전통 교회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운동을 잘 중재하여 좋은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재안의 실제로 미국의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가 제시될 수 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인 앤디 스탠리는 개척 당시부터 ‘비신자들을 향한 교회’라는 비전을 내걸고 교회를 개척했다. 노스포인트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동시에 이 시대 상황 속에서의 사명 감당을 목표로 교회의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sup>98)</sup>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과 처한 시대적 상황에 필요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두 가지 축을 통해 ‘비신자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99)</sup> 오늘날 전통 교회의 경우 대부분 교리를 비롯한 진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머징처치의 경우 시대적 사명 감당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앤디 스탠리의 ‘노스포인트 교회’는 교회의 본질 추구하고 사명의 추구가 균형을 이룬 중재안을 제시한다.

건강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전통 교회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노력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전통 교회와 새로운 교회 운동을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새롭게 개척된 교회들은 한국의 전통 교회가 지켜온 확고한 복음의 진리와 구령의 열정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시대가 요청하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회 운동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개척된 교회들이, 회복과 갱신을 위해 노력하는

97) *목회와 신학* 2012년 5월호에 보면 새로운 교회 운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98) Stanle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91.

99) *Ibid.*, 108.

한국의 저력 있는 전통교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 5.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의 교회개혁의 의미

성석환은 21세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다문화 사회이며, 한 공간, 한 지역 안에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전통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다원주의적 가치에 기반하여 사회문화적 다원화를 현실화한다고 말했다.<sup>100)</sup> 다원화된 21세기 한국 사회는 교회에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20세기 이후 사회가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민족, 같은 문화권이라고 여겨지던 나라 안에서도 세대 간, 지역 간, 인종 간에 엄청나게 다른 문화들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같은 다문화국가나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민족국가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흔히 나타났지만,<sup>101)</sup> 이제는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른바 세대 간의 소통 불가 현상이 엄청나게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임스 하킨은 니치라는 자신의 책에 '왜 사람들은 더 이상 주류를 좋아하지 않는가?'라는 부제를 달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흔히 '틈새'라고 불렀던 니치는 이제 대세로 자리잡았다. 자신들만의 개성,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택하고, 더 이상 보편적인 주류에 속하지 않으려는 새로운 세대들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다.<sup>102)</sup> 같은 문화와 세대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전통 교회들에게 대단한 도전을 주고 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들은 복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를 끌어안으려는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적 상황에서는 지난 20년간 쌓여온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운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100) 성석환,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문화 선교*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130.

101) 안혜신, "다민족·다문화 국가로..대한민국 구성원이 달라지고 있다," *이데일리*, 2014년 10월 7일자. 우리나라도 점차 다민족·다문화 국가로 변화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족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은 지난 4월1일 기준 6만 7806명으로, 전년에 비해 21.6% 늘어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시작된 2006년 9389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7배 증가한 수치다.

102) James Harkin, *니치*, 고동홍 역 (서울: 더숲, 2012), 11.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요구들이 강력한 상황에서 기존 전통교회들은 워낙 오랫동안 세속주의와 율법주의, 그것을 지탱하는 세속적이고 문자적인 성경해석의 틀에 갇혀 있다.<sup>103)</sup> 새로운 목회자들이 그 틀을 바꾸려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진통이 있다. 이 진통이 계속되는 사이 새로운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다원화되어 가는 교회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교회개혁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전통교회들의 갱신의 노력이 일어나는 동안 새롭게 개혁되는 교회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대상들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대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건전한 신학과 교회론, 새로운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소통 능력과, 교회를 떠나버린 세대들을 되돌릴 수 있는 신뢰 형성을 사명으로 여기고 새로운 교회들을 시도해야 한다.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의 교회 개혁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품고, 건강한 교회를 구현하여 새로운 세대와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사역이어야 한다. 나아가 새로 개혁되는 교회들은 전통 교회의 장점을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고민하며, 새로운 교회를 시도하여 미래에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미 이러한 교회개혁 사역은 여러 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중국교포들,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사역의 대상들이 많이 생겼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들도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sup>104)</sup>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서의 복지사역을 통한 복음전파, 도시지역의 세속화된 문화에 심취한 젊은이들을 위한 창의적 복음사역을 비롯한 여러 새로운 사역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05)</sup> 알콜 중독자나 장애아동, 유기되는 영아들을 위한 사역, 독거노인들이나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상들을 위한 특수한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개혁되었다.<sup>106)</sup>

20세기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부흥의 시대였다.<sup>107)</sup> 하지만 20세기 말 교회에는 이

103)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5-16.

104) 다문화 사회에서의 목회에 대해서는 *목회와신학*, 2013년 4월호, 28-89 참고.

105) 새로운 시대에 다양한 교회들의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는 *목회와신학*, 2012년 6월호와 2013년 3월호를 참고하라.

106) 김문석, “회복생명나눔의 사역현장을 소개합니다,” *목회와신학*, 2012년 6월호, 106-114 참고.

러한 급성장의 모습이 사라졌고, 급성장의 후유증이라고 할 만한 문제들이 급격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갑자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995-2005년 사이에는 14만 4천 명이 줄어들어 -1.6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실제 체감통계는 더 심각하며, 젊은 세대들의 통계는 절망적이다.<sup>108)</sup>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가톨릭 신도는 무려 220만 명이나 늘어나서 74.4퍼센트의 초고속 증가율을 보였다.<sup>109)</sup> 유명세를 타고 수평이동으로 성장한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교회들마다 자리가 텅 텅 비어가고 있다. 새로 개척된 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거나,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sup>110)</sup>

결론적으로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의 교회개척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되, 새로운 교회운동에 대한 요구를 시대적으로 건강하게 수용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봉사하는 사역이어야 한다.

107) 신성남, “3000억 호화 예배당과 중세 삼질의 부활,” 당당뉴스, 2013년 12월 30일자.

108) 이대웅, ““교회 떠나는 사람들, 주로 서울 지역 청·장년,” 크리스천투데이, 2011년 12월 3일자.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소장 박명수 교수)와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 주최로 이루어진 ‘한국의 종교인구 이동에 대한 분석’의 조사결과, 1995~2005년 간의 서울 종교인구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개신교의 경우 10→20대 -8.3%, 20→30대 -4.8%, 30→40대 -3.2%, 40→50대 -4.0%였던 반면, 천주교의 경우 10→20대 +4.5%, 20→30대 +4.2%, 30→40대 +6.0%, 40→50대 +5.3%를 나타냈다.

109) 신성남, “3000억 호화 예배당과 중세 삼질의 부활,”

110) 백상현, “기감, 최근 10년간 개척교회 자료 분석… 개척교회 41% 담임목사의 사임과 재정문제 등으로 폐쇄,” 국민일보, 2012년 2월 14일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서울연회에서 설립된 개척교회의 재정과 인력 등을 조사한 결과, 개척이후 10년간 생존율은 59% 밖에 되지 않았다. 개척교회의 41%가 담임목사의 사임과 재정문제 등으로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나마 운영되는 교회도 절반 이상이 미자립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제 4 장

## 도심 지역 건강한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

3장에서는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의 교회 개척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제 범위를 좁 좁혀서 도심 지역에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 논하려 한다. 교회개척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보통 지역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목회자와 동역자들의 영적 자산을 고려하여 준비가 이루어진다.

필자는 4장에서 도심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먼저 건강한 교회 개척을 위한 목회자의 준비를 다루고, 다음으로 21세기 한국 도심 지역의 전반적 특징, 도심 지역 젊은 세대의 세대적 특징, 도심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척의 준비를 살펴본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세계의 도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sup>111)</sup> 한국교회는, 특히 도심 지역의 교회들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점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개척을 위해 지역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도심 지역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정황과 영적 필요, 문화적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이 개척을 위해 훨씬 더 중요하다. 도심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도심 지역의 문화가 시차를 두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또한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가 도시화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또한 도심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는 집중해야 하는 젊은 세대는<sup>112)</sup> 한국교회의 미래를 젊어질 세대라는 면에서, 또한 교회를 많이 떠나는 세대라는

111)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나라 도시지역 인구현황”, Online: <http://www.city.go.kr>.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현상으로 도시화가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고, 70년대부터 80년대초까지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중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39.15%)부터 2000년(88.35%)까지 49.2% 급증하였으며, 2005년(90.12%) 이후 증가추세가 둔화되었지만, 2013년 현재 91.58%에 달하고 있다.

112) 필자는 본 논문에서 젊은 세대를 20세에서 40세까지의 세대로 규정할 것이다. 지금의 20

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룬다.

## 제 1 절 건강한 교회 개척을 위한 목회자의 준비

교회개척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교회개척의 필요성에 대해 기독교인들마저 회의를 품는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 개척보다 더 나은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sup>113)</sup> 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 개척은 꼭 필요한 방법이다.

교회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소명의식으로 투철한 준비된 목회자이다. 흥정길은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교회개척의 의지가 뚜렷하고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즉 목회자라고 단언한다.<sup>114)</sup>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다.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일하신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 개척을 위해 먼저 목회자 자신이 소명의식을 확인하는 일부터 구체적으로 교회 공간을 마련하는 일까지 다양한 분야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필자는 35세 때 교회를 개척했다. 돌아보면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여기에서는 목회자가 준비해야 할 점들을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척으로의 소명의식, 자신만의 목회철학과 비전, 개척 멤버의 구성과 재정 마련, 지역 선정과 건물 임대료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 1. 개척으로의 소명의식

김중환과 다니엘 산체스와 에비 스미스는 교회개척 지도자들의 중요한 특징 중

---

대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법하에서 사회에 진출하게 된 세대이며, 지금의 30대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하게 된 세대이다. 20세에서 40세까지의 세대는 디지털 세대라 할 수도 있으며, 에코붐 세대라 할 수도 있다. 그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에서 20~40세까지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매우 젊은 세대에 속한다. 게다가 늦은 취업과 결혼은 30대를 청년의 그룹과 유사한 정서적 특징을 갖게 만들었다. 한국교회가 그만큼 고령화되었고, 젊은 층에서 교회를 많이 이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13) Sanchez and Smith and 김중환, *재생산하는 교회*, 7.

114) 목회와 신학 편집부, *교회 개척*, 105.

하나가 이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단지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라고 말했다.<sup>115)</sup> 고층 건물을 세울 때는 땅을 깊게 파고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건물을 세워야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 교회개혁이 무척 힘든 일이니만큼<sup>116)</sup> 가장 중요한 기초는 소명의식이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목회자만이 교회 개혁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다. 피터 와그너는 교회를 개혁이 어렵고 긴장되고 좌절감을 안겨주며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차원의 개혁이 아닌 사람은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sup>117)</sup> 개혁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남들이 권한다거나, 다른 사역지가 없어서의 이유로 개혁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확인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한국의 많은 군소교단들은 신학생들에게 무조건 개혁을 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형교단은 실력이 있고 유능한 목회자들에게 개혁을 만류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모두 인간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개혁이 이해된다면 교회는 많이 개혁되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명성훈은 교회개혁의 잘못된 동기를 7가지로 제시한다. 나도 교회를 하나 가지고 싶어서, 생활의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개혁하자고 하니까,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부교역자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이다.<sup>118)</sup> 잘못된 동기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 목회자에게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도 이기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명이란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구원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차원에서, 목회나 선교 등 구체적인 직업의 차원에서, 나아가 특정한 하나님의 계획의 차원에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교회개혁을 위해서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특정한 하나님의 계획의 차원에서의 소명의식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울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일이 있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개혁을 꿈꾸고 있는 목회자라면 이 네 가지 차원의 소

115) Sanchez and Smith and 김종환, *재생산하는 교회*, 140.

116) Aubrey Malphurs, *21세기 교회개혁과 성장과정*,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6), 29-30.

117) C. Peter Wagner, *교회 개혁 이렇게 하라*, 서로사랑 편집부 역 (서울: 서로사랑, 2002), 58.

118) 명성훈, *교회개혁의 원리와 전략*, 41.

명목의식이 모두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 또한 자신의 계획대로 되 않을 때 스스로 좌절하여 자포자기 하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

## 2. 자신만의 목회철학과 비전

소명목의식이 교회개혁의 기초라면, 목회철학과 비전은 교회의 뼈대이다. 건강하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신만의 분명한 목회철학과 비전이 있다. 따라서 교회개혁을 준비하는 목회자라면 먼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목회철학을 고민하고, 비전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황성철은 목회자가 목회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신학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을 때 결과지향적인 목회에 유혹을 받으며, 교회는 병들게 된다고 말한다.<sup>119)</sup> 목회자는 성경적인 목회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목회철학이란 건강한 교회론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념이다. 유진 피터슨은 교회 리더십의 신학적인 부분이 치유와 마케팅 기법 때문에 가장 자리로 밀려나고, 복음의 근원에서 분리되었다고 지적한다.<sup>120)</sup>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강한 교회와 목회를 꿈꾸는 목회자라면 성경적인 목회철학을 정립하는 일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자신만의 건강한 목회철학은 세속화의 유혹과 자신의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 나아가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자신만의 목회철학이 없이 목회해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세속화의 유혹에 넘어지고, 목회자의 잘못된 욕망을 채우는 교회로 전락하여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된다.

목회철학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비전이다. 데일 갤러웨이는 비전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정의한다.<sup>121)</sup> 릭 워렌은 비전을 현재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마음 속에 그리는 것이라고 했다.<sup>122)</sup> 비전이란 목회철학에 근거한 목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교회와 교회가

119) 황성철, *개혁주의 목회신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4), 25.

120) Eugene Peterson, *깎대기 목회자는 가라*,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104.

121) Dale E. Galloway, *20/20Vision: How to Create A Successful Church With Lay Pastors And Cell Groups*(Portland: Scott Publishing, 1986), 29. Sanchez and Smith and 김종환, *재생산하는 교회*, 185에서 재인용.

감당할 사역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다. 교회는 소명의식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목회자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제시하는 비전을 통해 교회는 동력을 얻어 나아가게 된다. 명성훈은 조지 바나의 글을 인용하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의 위치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한다.<sup>123)</sup> 확고한 비전은 교회개혁에 필수적이며, 실제적으로 정말 큰 도움을 준다. 김종환과 다니엘 산체스와 에비 스미스는 교회개혁자가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분명한 방향 감각을 제공해 주며, 적합한 동역자들로 이루어진 팀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인다고 말한다.<sup>124)</sup>

그러면 어떻게 비전을 세울 것인가? 목회자가 자신의 비전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대상에 대한 경험과 연구, 자신의 달란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다. 김종환과 다니엘 산체스와 에비 스미스는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과정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계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구속의 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사역 대상 그룹과 관련된 필요와 기회를 직접 경험해야 하며, 자신의 비전을 조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비전을 가진 교회개혁자들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으며, 비전을 잘 표현하며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이다.<sup>125)</sup> 목회자가 자신의 뜻대로 비전을 정했을 때, 그것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극이다. 목회자가 자신의 달란트에 대한 분석이 없이 남들이 잘 하는 것을 나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자신을 통해 하실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사역의 경험들과 자신의 달란트에 대해 생각하며, 수년 동안 기도 중에 도시, 미래, 선교, 복지라는 네 개의 비전을 세웠다. 필자는 도시의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고픈 소망이 많았고, 그 일에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사역 중에 발견했다. 그래서 '도시'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일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변혁

122) Rick Warren, *The Purpose-Drive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95), 100.

123) 명성훈, *교회개혁의 원리와 전략*, 87.

124) Sanchez and Smith and 김종환, *재생산하는 교회*, 186.

125) Ibid., 187-188.

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세워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장차 해외에까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선교이며, 국내에 한국교회가 더불어 살아야 할 많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복지이다. 이렇게 세운 비전이 교회의 동력이 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신만의 분명한 성경적 목회철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기도와 자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워진 비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가 날아오르게 하는 건강한 연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분명한 목회철학과 비전에 대한 고민이 충분한 목회자는 성경적이면서도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 3. 개척 멤버 구성과 재정 마련

개척에 대한 소명의식이 확실했고, 자신만의 목회철학과 비전이 분명하다면 개척을 해야 한다. 그 때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sup>126)</sup>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개척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척 멤버 구성과 재정 마련이다. 명성훈은 새로운 교회는 개척자와 개척팀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며, 현실적으로 교회개척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정 문제라고 했다.<sup>127)</sup> 충분히 기도하면서 개척자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흔히 이런 부분을 계획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한 것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 물론 그런 분들의 믿음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계획을 할 수 없는 상황과 계획을 하지 않는 무모함은 구분되어야 한다.

박준호는 교회 개척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교회 중심의 개척, 목회자 중심의 개척, 평신도 중심의 개척, 교회의 분규로 인한 개척, 교회 비전에 동참하는 핵심 멤버들을 중심으로 한 개척이다.<sup>128)</sup> 지금 대부분의 교회개척자들이 지향해야 할 교회 개척의 유형은 교회 비전에 동참하는 핵심 멤버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된 후 시작되는 교회개척이다. 민장배는 교회개척의 7가지 유형을 소개하면서, 개척멤버가 확보되면 창립을 하는 교회개척 유형을 성경공부를 통한 교

126)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137.

127) Ibid., 137, 148.

128) 박준호, “판교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교회 개척전략 - 판교 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33-36.



회개척이라고 소개했다.<sup>129)</sup>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중심의 개척은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게다가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서 이른바 ‘프랜차이즈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목회자 중심의 개척과 평신도 중심의 개척과 교회의 분규로 인한 개척은 특수한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개척 유형이다. 목회자가 분명한 목회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인 개척 멤버들을 통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개척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필자도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이런 방식의 교회 개척이라면 더더욱 교회개척을 위해 개척 멤버를 구성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교회개척을 위한 21세기 한국적 상황은 과거와 정말 다르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영혼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무턱대고 천막을 치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의 상황은 과거와 비교가 불가하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과 맞지 않는 교회에 다니기 어려워졌다.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렇다. 또한 이단들의 활동이 많아져서 알려지지 않은 소형 교회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교회에 가서 자신에게 관심이 쏟아지는 것을 전달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목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달란트를 쏟아 붓고 교회를 세워갈 개척 멤버는 필수적이다. 이런 현실적인 의미에서도 개척 멤버 구성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개척 멤버들을 통해 교회에 필요한 재정의 씨앗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민장배도 이런 유형의 교회개척이 재정에 안정감을 준다고 지적했다.<sup>130)</sup>

그렇다면 어떻게 개척 멤버를 구성할 것인가?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개척 멤버를 구성하기 전에 개척을 위한 목회자의 기도를 통한 소명의식과 목회철학과 비전을 고민하여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현실적 준비의 첫 단계는 개척 준비를 위한 기도회이다.

한 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 가족을 포함하여 기도로 도울 사람들과 함께 기도회를 할 필요가 있다.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세심하게 준

129) 민장배, *교회개척학*, 54-56.

130) 민장배, *교회개척학*, 55.

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교회와 마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필자도 가정에서 1년 정도 기도회를 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주변의 몇 목회자들과 지인들이 참석했다. 그들이 반드시 개척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기도회에 참석했던 멤버들이 개척 멤버가 된 것은 아니다. 또한 언제 개척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기도회를 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고해짐에 따라 교회에서 사임하고 개척을 위한 구체적 준비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기도회가 교회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첫 단계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과정을 통해 필자는 부족하지만 분명히 개척을 위한 영적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기도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개척 멤버로 자원하는 몇 사람이 생긴다면, 그들과 함께 목회철학과 비전 공유를 위한 양육 모임을 해야 한다. 목회철학과 비전이 공유되지 않은 개척 멤버는 동참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회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작은 교회일수록 구성원들의 하나됨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 특히 개척 멤버로 자원한 사람들이 대체로 젊은 청년들이었다. 사실 필자와 개척 멤버들은 재정적 헌신보다 영적으로 하나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필자의 경우 목회철학과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개척 멤버로 관심이 있는 지체들을 양육했다. 그들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지금까지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들은 지하상가에서 시작한 교회에서의 불편함도 감수했고, 교회의 위기가 있을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다음으로 재정 마련이다. 교회개척자는 최선을 다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sup>131)</sup> 필요한 재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척을 하면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비전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목회자가 재정적 압박을 심하게 받아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재정을 마련하는 일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기도회를 하면서 참석한 분들을 통해 모금을 했고, 개척 멤버들과 작정을 해서 몇 천 만원 정도를 마련했다. 개척 준비 기간과 초기 1년 반 정도는 지인들이 월 생활비를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는 은혜를 누렸다. 건물을 임대하고 실제적으로 개

131) Sanchez and Smith and 김종환, *재생산하는 교회*, 175-176.

척이 가시화될 때, 필자의 목회를 후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요청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하여 초기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졌다. 목회자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척 멤버들을 구성하고 그들에게 작은 헌신을 요청하여 재정이 모인다면, 마음도 하나되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 개척 멤버 구성과 재정 마련은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이 될 수 있다. 생각지도 않게 진행되는 멤버 구성과 재정 마련을 통해 필자는 마음으로 확신한 개척에 대한 소명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 4. 지역 선정과 건물 임대

개척의 소명을 받은 목회자가 자신의 영적 자산과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지역 선정이다. 지역 선정은 목회자의 사역 비전과 영적 자산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명성훈은 교회개척을 위한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인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과 목회 대상을 삼을 사람들로 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sup>132)</sup> 전자는 목회지가 어떤 지역에 맞는 목회자인지에 따라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목회자가 대상으로 삼을 사람들을 고려하여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어떤 목회자가 봉사와 섬김에 탁월하다면 그러한 달란트가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 어떤 목회자가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데 달란트가 있다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지역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목회자가 지성인들에게 적합한 양육과 기독교적 변증에 능하다면 지성인들을 목회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 교회개척을 위한 지역 선정이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오해되고 있어 유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양한 목회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양한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을 섬기게 하신다. 따라서 지역 선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달란트를 파악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목회자가 지역을 선정할 때는 지역의 특성도 잘 파악해야 한다.<sup>133)</sup> 지피지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자신도 알고, 자신이 섬길 목회지의 특성도 파악해

132)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163-164.

133) Ibid., 164-165.

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적 조사 뿐만 아니라 인구 통계적 조사, 나아가 문화적 조사와 영적 필요에 대한 조사도 되어야 한다.<sup>134)</sup> 목회자가 자신의 영적 자산과 달란트는 파악을 했는데, 지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지역 선정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자신의 목회철학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에 적합한 곳인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필자의 경우 서울의 강남지역을 선정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는 목회적 신념에 근거했다. 새로운 교회는 새롭게 성경적 세계관과 교회론을 정립해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하기에는 젊은 세대가 더 적합한 대상이라는 판단을 했다. 나아가 필자의 사역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젊은 지성인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양육하고 비전을 심어주는 일이 필자에게 적합한 달란트라고 판단했다. 물론 강남 지역은 교회개척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이미 큰 교회들이 있어서 교회개척이 어려울 것이라는 많은 주위의 조언이 있었다. 하지만 필자가 목회철학과 비전을 펼치기에 용이하고, 필자의 영적 자산과 달란트를 통해 섬길 곳이 그곳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믿었다. 여기에 개척을 준비할 무렵에 소천하신 아버지의 조언도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역을 선정한 후에 두 달 정도 건물 임대를 위해 시간을 보냈다. 예배 장소를 위한 건물과 관련한 원칙은 개척 초기의 필요한 동시에 미래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sup>135)</sup> 최근 카페나 공공건물을 주일에만 임대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는 예배당을 임대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건물 임대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성도들이 예배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카페나 공공건물을 주일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주중 모임 공간이 있어야 기도와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 임대를 위한 비용의 문제를 감수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문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이다. 건물 임대에서 고려할 점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와 교회를 위한 건물로 적합한가이다. 소음으로 인

134) 박준호, “판교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교회 개척전략 - 판교 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48-49.

135) Sanchez and Smith and 김종환, *재생산하는 교회*, 314.

해 주변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주일에 주차를 할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장차 교회가 해야 할 프로그램에는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한다.<sup>136)</sup> 여기에 또 고려해야 할 것은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비전이다. 교회는 크고 화려할수록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교회성장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는 이 시대에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비전이 확고하게 전달된다면, 작은 교회도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가 아름답게 잘 인테리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저예산을 고집했다. 지하상가를 임대하였고, 화려한 인테리어도 하지 않았다.<sup>137)</sup> 그리고 개척 멤버들에게도 미리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공감을 위해 노력했다. 대신 예산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 집행할 것도 약속했다.<sup>138)</sup> 건물의 공간은 지나치게 커서도 작아서도 안된다. 최소한 자녀들을 위한 작은 공간도 필요하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척된 교회는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회철학과 비전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 2 절 한국 도심 지역의 전반적 특징과 개척 준비

탐 싸인은 이 시대에 세상의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는 시도들로서 네 가지를 소개한다. 그는 온 세계를 다니며 체험한 결과 세계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운동들을 이머징 교회, 선교적 교회, 모자이크 운동, 수도원 운동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sup>139)</sup> 변화되고 도시화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교회운동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물론 복음을 분명히 견지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이다. 결국은 상황화의 문제가 중요하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상황화를 통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의 문화를 정착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sup>140)</sup>

136)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166-171.

137) 필자는 저예산의 교회 인테리어를 위해 KR북방선교회의 도움을 받았다.

138) 필자는 실제로 건물을 지하로 하고 사례도 2006년 개척 첫 해에 받지 않는 대신 첫 해부터 선교와 구제를 위한 후원과 단기선교사역을 실행했다.

139) Tom Sine, *하나님 나라의 모략*, 박세혁 역 (서울: IVP, 2014), 36-67을 참고하라.

140) 장남혁, *한국문화 속의 복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이 책에는 한국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사역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소개된다. 236-349 참고.

필자는 현대 목회자들이 도심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뉴욕 리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는 결국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41)</sup> 그는 우리가 도시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훌륭한 예언자이다. 그는 뉴욕의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세계의 도심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도심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우리는 도심 지역 시민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영적인 견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심 지역 안에서 교회는 이 도시를 어떻게 복음화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이며, 복음적 문화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국 도심 지역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척의 준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1. 권위의 상실로 인해 가속화되는 세속화

도시의 세속화는 모두가 이미 보고 있는 현상이다. 도시의 세속화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속화란 무엇인가? 위키 백과에서는 세속화를 ‘종교적 가치와 제도가 매우 동일시되던 사회가 비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42)</sup> 세속화는 근대화나 합리화 같은 사회의 변화 때문에 종교가 모든 측면에서 권위를 잃는 현상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 전반의 윤리적 타락의 모습의 내면에는 종교나 종교와 버금가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세속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모든 기존의 권위를 해체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해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더 이상 사회의 기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존의 권위로부터 내려오는 규범이나 가치관이 더 이상 전수되지 않는다.

도시는 기존의 권위로부터 내려오는 규범이나 가치관이 전수되기 더욱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래부터 살던 곳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규범과 가치관을 전수해줄 권위자와 관계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도시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활동을 하며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다. 물론 이런 피상적인 관계는 자신의 목적이 끝나면 함께 끝나는 경우가 대

141) Keller and Thompson, *Redeemer Church Planting Manual*, Ch. 3 참조

142) 위키백과, “세속화”, Online: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C%86%8D%ED%99%94>

부분이다. 그러한 관계를 통해 삶을 나누고 자신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여가 시간을 위해 자신과 취향이 같은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동호회 활동을 한다.<sup>143)</sup> 그 동호회는 외로움을 달래고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매우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동호회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한 마디로 말하면 ‘권위의 상실’ 상태라 할 수 있다. 헨리 나우웬은 이 시대의 특징을 ‘아버지 상실의 시대’라고 표현했다.<sup>144)</sup>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가 없는, 또 권위를 인정하기도 싫어하는 이 시대의 특징을 잘 표현한 것이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권위의 상실’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과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다.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 사회의 급격한 세속화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권위의 상실’ 상태에 살아가는 현대 도시인들은 종교나 규범적 권위에 동의하지 않고 세속화된다. 일정한 도덕적 기준도 없어진 상태, 규범과 가치관이 사라진 상태에서 도시의 세속화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 기독교인들마저도 신앙적인 가치와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다.

교회는 이렇게 권위의 상실을 통해 세속화되는 도시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교회는 말씀과 말씀이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 진정한 권위가 되어야 한다. 시대에 필요한 말씀사역을 연구하고, 특히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사역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기복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율법주의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를 세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권위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 도심 지역에서의 교회개혁을 꿈꾸는 목회자라면 자신이 세운 교회가 세상에 대해 진정한 권위가 되기 위한 양육과 섬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며, 국내와 해외에서 이 영혼들을 섬

143) 정자연, “SNS·동호회는 ‘취업 지름길’?” *경기일보*, 2014년 7월 30일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5~30세 5천733명을 대상으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적 모임 참여자(80.0%)가 미참여자(73.9%)에 비해 취업률이 높았고, SNS 참여자(79.8%)가 미참여자(76.0%)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적 모임에 참여하면서 구성원과 다양한 정보 교류가 가능해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44) Henri Nouwen, *상처받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2001), 45-50.

기기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려 힘쓰고 있다.

## 2. 공동체의 상실로 인해 극대화되는 개인주의

다음으로 살펴볼 도심 지역의 특징은 개인주의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4.8퍼센트에 불과했던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25.4퍼센트로 증가했다.<sup>145)</sup> 요즘 서울에는 집밥 모임이 유행이다. 집밥 모임이란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모임이다. 이른바 ‘소셜다이닝’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 혼자 TV보며 라면이나 간단한 식사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1인 가구가 대단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도심 지역에 경제적 이유로 개인주의가 강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소셜다이닝’이 유행하는 현상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없는 이 상황을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공동체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을 부채질 하는 것은 요즘 도심 지역에 사는 젊은 세대들이 직장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한 곳에 오래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리저리 이주하며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도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는 개인주의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이다. 이른바 ‘공동체의 상실’ 상태이다. 도시로의 이주를 통해 가정이나 친족 공동체가 많이 붕괴되었고, 이 현상이 가져온 정신적 폐해는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20대 이상 1인 가구 4000명을 전화인터뷰 했다. 독신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0대에는 52.7퍼센트로 절반을 조금 넘겼지만, 4-50대에서는 41.9퍼센트, 60대 이상에는 36.7퍼센트로 줄어들었다.<sup>146)</sup> 앞으로 1인 가구는 점점 늘어가고, 이들의 삶은 더욱 험겁고 고독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도시화되어 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화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사람은 홀로 살아가기 힘든 존재이다. 누구에게나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도시로 밀집시켰다. 그러다 보니 도시민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들의 삶의 안정을 줄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공

145) 남소연 홍현진, “혼자 간 ‘집밥’ 모임만 20개... 서울, 외로워요,” *오마이뉴스*, 2014년 10월 18일자.

146) 양민철 양인호, “1인가구 450만 시대, 골드싱글 1세대 노후가 두렵다... 보건사회연구소 독신 보고서,” *국민일보*, 2014년 11월 13일자.



동체가 없이 살아가게 된 것이다. 사실 이 시대 도심 지역의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없는 개인주의적 삶에 익숙해진 것뿐이다. 공동체가 없는 인간은 마치 땅을 땅이 없이 날아다니는 새와 같다. 쉴 곳이 없이 날아다니는 새처럼 '공동체의 상실' 상태에서 개인으로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 도심 지역 사람들은 보호자, 상담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도 없고, 있다고 해도 만날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옆집에 사는 사람과도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삶 속에서 도시민들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가 실종된 상황에서 개인주의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도심 지역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요즘 대형화된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진정한 공동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대형교회는 개인주의적 도시민들에게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략하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이 시대에 개척되는 교회들은 개인주의적 삶에 익숙한 성도들에게 진정한 공동체를 주기 위해 소그룹 사역에 힘써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공동체를 강요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오후 예배를 소그룹예배로 전환하여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성숙을 위해 양육을 했고, 소그룹에서 상처 받고 떠나는 성도들을 감수하고 공동체를 제공하는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갔다. 필자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다. 공동체의 실종 상태로 치닫는 현실에서 도심지역 교회개척은 진정한 공동체를 제공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3. 신뢰의 상실로 인해 확산되는 교회에 대한 반감

에디 깁스는 1985년 전후의 세대를 조사한 결과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들보다 더욱 더 많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제도적 권위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경고한다.<sup>147)</sup> 이러한 제도적 권위 중 하나가 기존의 교회라는 사실을 매우 명확하다. 이 시대 사람들, 특히 도심 지역에 살아가는 비판적이고 정의감 넘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전 세대에 걸쳐 상상

147) Eddie Gibbs, *넥스트 처치*, 111-112.

이상이다. 일부 교회에 대한 반감은 이미 기독교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 지 오래 되었다.<sup>148)</sup> 물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조직적인 활동이 있다고 한다.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도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90%에 가까운 젊은 세대의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주역으로 성장해야 하는 교회 내의 젊은 세대들에게서도 교회에 대한 반감이 발견된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이유를 교회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사회나 기독교이든 다른 종교이든 종교인들은 학자들과 함께 가장 신뢰받는 집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불신의 대상인 정치인들만큼이나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불교도, 부흥하고 있다는 가톨릭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종교인들까지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한국 도시의 상황은 한 마디로 '신뢰의 상실'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들에게까지도 신뢰를 줄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 수 밖에 없다.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모든 언론의 보도들, 모든 유명인의 발언들을 의심한다.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들이 서로 서로를 의심한다. 나아가 가정에서 가족들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신뢰의 상실은 한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재앙을 가져다 준다.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에, 개인과 집단 간에, 집단과 집단 간에 엄청난 갈등이 야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개개인의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수많은 정신질환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는 한국 사회 내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존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정신질환을 발생시키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불신에 의한 갈등에서 야기된다. 일반적으로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는 법적 소송이 증가한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148) 디지털뉴스팀, “종교 신뢰도 가톨릭, 불교, 개신교 순…개신교 신뢰는 10명 중 2명,” 경향신문, 2014년 2월 5일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4일 발표한 ‘201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6%나 됐고, ‘보통’이라는 의견은 36.0%였다. 주요 종교기관의 신뢰도는 가톨릭(29.2%)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불교(28.0%), 개신교(21.3%), 유교(2.5%), 원불교(1.3%) 순이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종교 신뢰도를 보면 가톨릭(32.7%), 불교(26.6%), 개신교(8.6%)로 나타나 개신교 신뢰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sup>149)</sup> 가뜩이나 신뢰의 상실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 도심 지역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뢰의 상실은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세대들의 교회에서의 이탈은 기독교의 성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심 지역에서 개척된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신뢰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추문들에 대하여 변명하기를 그치고, 사과하며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의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치스럽게 보이는 삶을 절제하고,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겨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개척의 대상으로서의 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권위의 상실에 의한 세속화, 공동체의 상실로 인한 개인주의, 신뢰의 상실에 의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이 시대 교회가 섬겨야 할 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교회는 이런 도심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권위이며, 진정한 공동체이며, 신뢰의 회복이다. 이것이 없이 도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제 3 절 도심 지역 젊은 세대의 세대적 특징과 개척 준비

지금까지 도심 지역 시민들의 일반적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필자는 앞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계획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제 세상의빛교회가 세워진 도심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1. 도심 지역 젊은 세대의 정의와 일반적 특징

우선 젊은 세대에 대해 정의를 해야 한다. 세대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양하고 상의한 기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자 서울대 한경구 교수는 ‘위

149) 김성원, “교회 분쟁의 해법은?” *아이굿뉴스*, 2011년 8월 24일자. 2006년 통계에 의하면 법원에 제소된 전체 민사소송 379만건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69만여 건이 교회 또는 교인 관련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의 20세기를 직접위기세대, 간접위기세대, 탈위기세대로 구분하고, 위기가 사람의 인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한다.<sup>150)</sup> 필자는 이 논문에서 젊은 세대를 20세에서 40세까지로 보았다. 대략적으로 1975년에서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젊은 세대라고 부르려 한다. 우선 20~40세까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대단히 젊은 세대에 속한다. 어느 교회에서나 이 연령 또래는 매우 젊은 세대로 분류된다. 또한 이 세대는 민주화 이후 청소년기를 지낸 세대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매우 선호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사회의 변화를 겪은 세대라는 것이다.

우선 지금의 30대(30~40세)는 1998년 IMF경제위기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그들의 직장 생활에 늘 함께 했다. 취업과 안정된 직장생활이 불가능했던 세대이다. 지금의 20대(20~30세)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세대이다. 이 세대는 취업전쟁과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그들과 함께했다. 취업을 하기도 매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세대이다.

이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극심한 가난을 겪지 않은 세대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어렸을 때는 비교적 풍족함을 누린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닥친 1998년과 2008년의 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 변동은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느껴졌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인 저성장의 기조 속에 엄청나게 높아진 주거비와 책임금으로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주입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이 세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Die Welt*지의 저널리스트 오스트리아 출신 올리버 예게스는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자라며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메이비 세대(Generation Maybe)라고 지칭했다.<sup>151)</sup> 디지털 사회에서 자라면서 책보단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150) 한경구, "위기의 인성과 21세기 한국사회," *20세기 덮고 뛰어넘기*, 환경운동연합 21세기위원회 (서울: 나남, 2000), 289-303.

151) Oliver Jeges, *결정 장애 세대*, 강희진 역 (서울: 미래의 창, 2014), 21. 메이비족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신조어는 말보로 담배의 'Don't be a Maybe'라는 문구에서 착안한 용어로, 1980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가리킨다.

140자 이상의 진지한 고민과 사고를 할 줄 모르는 세대, 핵가족화 된 사회 속에 살면서 경쟁을 빙자한 개인주의에 익숙해지고, 부모의 과잉보호까지 받으며 살면서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된 세대가 바로 젊은 세대라는 것이다. 2040세대를 정확히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마크 바우어라인은 1980-90년대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세대를 '가장 멍청한 세대'라고 하기도 했다.<sup>152)</sup>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20세에서 40세까지의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국 사회는 1998년을 기점으로 취업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했던 세대들에게 매우 가혹해졌다. 지금의 30대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젊은 이들이 살아가기에 더욱 힘든 사회가 되었다.<sup>153)</sup> 2008년 이후 취업해야 했던 세대들은 지금의 20대이다. 이 세대들은 실제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탈한 세대이기도 하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18-32세까지의 세대(2015년을 기점으로 할 때 28-42세까지의 세대)에서 1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sup>154)</sup> 이들 세대는 지금 소위 가나안(교회 나가지 않는 세대를 풍자한 말) 성도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884년부터 시작된 한국교회는 100주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서서히 새로운 세대들을 품고 양육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보통 전도는 동질문화권, 선교는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타문화권에 행해지는 선교에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했다는 것을 선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신 개념의 차이, 음식에서 장례, 조상에 대한 추모와 같은 문화적인 차이,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동질문화권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20세기 말부터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인류 역사가 19세기까지 겪었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20세

152) Mark Bauerlein, *가장 멍청한 세대*, 김선아 역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4), 5.

153) 이진영, “우울한 韓 청년의 자화상” 결국 일자리가 핵심,” *이투데이*, 2014년 11월 18일자.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지난해 2.58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배보다 높다. 구직포기청년실업자인 ‘니트족’이 청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OECD 회원국 중 5위이다.

154) 우성규, “학업·취업 부담… 젊은이들이 떠난다,” *국민일보*. 2008년 12월 10일자.;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 *CBS 뉴스*. 2013. 7. 13. 참조.

기에 겪었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이다.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에서 근원한다. 생각하고 느끼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교회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타문화권의 사람들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복음전도전략을 세워야 한다. 개척의 대상으로서의 새로운 세대는 앞으로 교회들에게 선교적 접근을 요구한다. 새로운 세대의 상황(Context),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적 환경, 그들의 삶의 방식, 즉 문화를 고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제 한국 도심 지역 젊은 세대의 세대적 특징을 살펴보고 교회개척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자.

## 2. 경쟁에 내몰린 세대

한국 도심 지역 지역의 젊은 세대는 경쟁에 내몰린 세대이다.<sup>155)</sup> 이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내몰려 매우 바쁜 삶을 살았던 세대이다. 이 세대는 고등학교까지 서열화된 상황에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위한 치열한 입시를 준비해야 했다. 인성교육이나 윤리의식, 사회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자녀들의 조기교육을 위해 맞벌이에 내몰린 부모의 양육의 부재까지 더해져 젊은 세대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기성세대보다 미래를 위해 잘 준비되는 삶을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들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위한 경쟁에 내몰려야 했다. 이것만큼은 지금의 기성세대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대학 이후의 상황은 지금의 기성세대보다 매우 좋지 않았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아야 했다. 학점은 물론이고, 영어점수에 스펙용 봉사나 여러 활동을 해야 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고사하고 취업의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야 했다. 현저하게 높아진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 외에도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다. 졸업을 하면서 많은 취업준비생이 학자금 융자로 인한 부채를 안고 사회로 나갔다. 취업 후에는 어떤가? 요즘엔 소위 안정된 직

155) 이유진 오현태, “어릴 때부터 극한 경쟁... 취업난 생활고의 연속 ‘청춘은 서글프다,’” *세계일보*, 2011. 12. 17일자.

장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일해야 했다.

이러한 경쟁은 자기개발 열풍을 만들어냈다. 자기개발 강사들이 유명인이 되었다. 교회에서도 자기개발을 복음처럼 전했다. ‘아침형 인간’이 유행하기도 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시작으로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쏟아져 나왔다. 또한 자기개발열풍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개발의 반대급부로 힐링 열풍이 불었다. 경쟁 상황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은 심리적 위안을 얻고 싶어 했다. 교회에서도 심리적 치유의 설교가 많이 유행한다. 내적 치유가 유행하고 있다. 자기개발과 힐링 열풍은 경쟁에 내몰린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경쟁에 시달린 젊은 세대는 의사소통, 갈등해결, 리더십 등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을 거의 받지 못하고, 경쟁에만 내몰리며 성장했던 세대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매우 취약하다. 여러 정신적 질환들, 소위 ‘정신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이 급증하고, 심지어는 자살이 많아지기까지 한다. 카네기에 의하면 직장 안에서의 문제,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중 85퍼센트는 업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이다. 반대로 직장에서 성공하는 요인도 85퍼센트가 인간관계 때문이며, 15퍼센트 정도만 업무능력이나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이다.<sup>156)</sup> 한 개인이 이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스펙과 업무 능력 이외에도 너무나 많다. 하지만 맞벌이 부모의 양육환경 하에서 함께 할 형제도 적은 가운데 경쟁에 내몰리며 성장한 세대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성, 협동심,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갈등의 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된 경쟁과 군대와 직장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심각한 스트레스가 쌓인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울증이나 분노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sup>157)</sup> 군대와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우발적 범죄가 증가한다. 일생동안 경쟁에 내몰려서 좁은 문들을 통과

156) Dale Carnegie, *인간관계론*, 최염순 역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4), 14.

157) 김현선, “20대 ‘조울증’ 환자 급증,” *타임터뉴스*, 2013년 6월 3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2007~2011년) ‘조울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7년 4만6,000명에서 2011년 5만8,000명으로 늘었다. 특히 20대 환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인구 10만명 당 진료환자 중 20대 여성은 연평균 8.1% 늘었고 남성은 7.9%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이 6%를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들은 극도로 바쁘고 고된 일상을 살고 있다. 그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다. 가정들에게는 갈등이 증폭되고, 이러한 상황은 삶을 더욱 힘들게 한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sup>158)</sup> 이렇게 새로운 세대들은 공동체가 없는 도심 지역에서 극도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쟁에 시달리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복음적 삶을 요청할 것인가?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많은 이웃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접근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 세대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들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 주어야 한다.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감하려는 진정한 마음이 개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이다.

### 3.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세대

이 시대 한국 도심 지역의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해 너무나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모이면 취업, 결혼과 주거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대책이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술을 마시는 등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특히 지금의 20대에 대해서 더욱 비관적 전망이 쏟아진다. 지금의 20대는 이른바 88만원 세대이다. 단 5% 정도만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800만을 넘어서게 될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회 불균형과 세대 갈등 속에서 정치적으로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20대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sup>159)</sup> 여기에 더하여 사회의 노령화에 따라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주어질 집은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느끼게 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한민국에서 개개인이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 결혼과 주

158) 유충현, “저출산=저성장 악순환의 덫 한국경제 발목 잡아,” *이투데이*, 2014년 8월 28일자.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태어난 아이는 43만65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9.9%나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2013년도 8.6명을 기록해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역대최저치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의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10년 연속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159) 우석훈 박권일, *88만원세대* (서울: 레디앙, 2007), 21-22.



거안정을 위한 비용은 엄청나게 상승했다. 임금은 별로 오르지 않은 채,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엄청나게 뛰었다. 1998년 IMF 이후부터 취업이 너무나 어려워졌고, 2008년 세계 경제 침체 이후로는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에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사포세대까지 등장하고 있다.<sup>160)</sup>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여 30대 초 중반에야 비로소 사회에 진출하는 이른바 ‘올드 루키’들이 아주 흔해졌다.<sup>161)</sup> 이들은 출발이 늦고, 학자금 대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을 하더라도 40세가 가까울 때까지 거의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상당수도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 명이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복지 수준은 지난 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607만 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2퍼센트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시간제 노동자(1주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노동자를 일컫는 말)가 203만 2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4만 8천명(7.9%)이 늘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또 다른 비정규직 유형인 ‘한시적 노동자(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기간제 · 비기간제 노동자를 일컫는 말)’는 350만 8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6천명(2.2%)이 늘었다. 파견 용역 일일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는 211만 2천명으로 10만 2천명(-4.6%)이 줄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35.1%, 40대도 21.3%나 되었다.<sup>162)</sup> 미래를 준비해야 할 세대가 이처럼 불안한 고용상태에 있으며, 자주 이직을 해야 하고, 휴직 상태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게 된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중산층에 진입하여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 어렵다. 이들은 지금의 기성세대처럼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미래를 불안해하고, 2년 후의 주거를 걱정하는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미래에 대한 꿈과

160) 김현주,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집값... 인맥까지 포기한 ‘사포세대,’” *세계일보*, 2013년 12월 11일자.

161) 박계현, “신입사원 평균 나이가 33세?...서글픈 ‘올드루키’ 전성시대,” *머니투데이*, 2014년 12월 15일자.

162) 이병호, “600만 비정규직 시대...지난해 대비 정규직과 차별 확대,” *민중의 소리*, 2014년 10월 28일자.

비전이 사라지고 안정된 삶이면 족하다는 시대적 흐름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불안함이 지속되면 정상적인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 보다는 자격증이나 안정된 고용 상태를 소망하는 삶이 익숙한 세대들을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줄 것인가? 먼저 그들을 위한 상담과 치유의 사역을 위해 목회자와 교회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필자의 청년 사역의 경험으로 보아 많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인내하고 교회의 사역이 동참하다가 지쳐서 떠나간다. 교회는 이 세대들을 양육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

#### 4.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폭발하는 세대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기득권층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에게 이러한 사회를 물려준 것은 기성세대와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한다. 한 언론은 땅과 집 등 부동산에 치중된 한국 사회에 빈부격차와 세대격차를 벌리며 사회를 갈라놓았다고 꼬집었다.<sup>163)</sup> 젊은 세대들은 재벌과 대기업, 기성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살기 힘든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나라, 풍요로운 사회를 물려주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보수적 기성세대는 7-80년대의 경제성장 시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회에 대해 불평하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나약한 정신력과 감사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함을 매우 불쾌하게 여긴다. SNS를 통해서 이러한 의견들은 때 사안마다 충돌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사회는 가정 안에서도 세대 갈등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sup>164)</sup> 한국 사회는 세대 갈등으로 폭발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 정확히 누구의 말이 맞는지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심스럽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젊은 세대들의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들의 생각 속에 지금의 교회가 재벌과 대기업, 기성 정치인과 관료들과 똑같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이 반기독교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는 지금의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모습이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163) 류순열,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세대갈등에 경제 발목,” *세계일보*, 2005년 1월 27일자.

164) 이용권, “세 집 건너 한 집 1년새 ‘가정갈등’ 경험,” *문화일보*, 2015년 2월 2일자.

생각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지금의 교회들은 고민해야 한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구현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교회는 그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젊은 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나 기독교 신앙 자체보다는 세상법과 교회법을 무시하는 목회자들, 사육을 하나님 뜻으로 호도하는 이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몰아붙이는 행태들 때문에 교회를 불신한다고 한다.<sup>165)</sup> 교회를 새로 개척하려는 목회자들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헌신을 해야 한다. 말씀과 다양한 사역의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과 더불어 투명한 교회 운영과 성경적인 윤리적 삶을 실천해야 한다.

어느 세대나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에 따라 그 세대의 특징이 형성된다. 흔히 지금의 20대와 30대를 디지털 세대라고 부르지만, 한국에서 그들이 겪은 역사는 그들을 치열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의 세대가 되게 만들었다. 그 세대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역하는 것이 도심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교회는 지금의 20대와 30대를 품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고수하는 일만 빼놓고, 이 세대의 아픔을 품고, 이 세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 제 4 절 도심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개척 준비

지금까지 한국 도심 지역의 젊은 세대의 세대적 특징을 그들이 겪었던 시대를 따라 살펴보았다. 이제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은 도심 지역의 문화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교회의 사역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속 변화되어 가는 문화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것은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고민이어야 한다. 널 쫓은 복음의 핵심이 문화를 초월하는 동시에 문화를 내면에서부터 바꾼다고 말한다.<sup>166)</sup> 교회는 문화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아가 문화를 변혁해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책임을 가

165) 강주화, “등 돌리는 이유... 누가 기독교에 돌을 던지나,” 국민일보, 2013년 10월 18일자.

166) Neil Cole, *교회 3.0*, 64.

지고 문화를 연구해야 한다.

안영혁은 교회가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적인 풍성함을 줄 뿐 아니라, 일반 은총에 관한 이론이 제 자리를 잡는다고 말한다.<sup>167)</sup> 성숙의 이원론적 구분이 강하고, 복음이 교회 안에 국한되는 현상을 강한 한국교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입장에서 한국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명성훈은 문화적 간격을 메우는 작업으로 새로운 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sup>168)</sup> 따라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 때는 지역보다는 문화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강남 같은 한국의 도시 중심가는 변화하는 문화를 가장 빨리 수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모인 곳이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생각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 1. 디지털 감성 문화와 사역

도심 지역의 특징은 타지역보다 더욱 디지털에 익숙한 감성적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초로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이 편한 젊은 세대가 도심 지역에 많이 모여 생활하고, 그들의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마크 바우어라인은 자신의 책 *가장 멍청한 세대*에서 젊은 세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는 디지털 세대를 의사문맹(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독서는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은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서핑하고, 채팅하고, 포스팅하지만, 복잡한 글을 분석하지도 못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정확한 철자법도 모른다고 꼬집는다.<sup>169)</sup>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는 도심 지역의 문화는 이전과 모든 면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디지털 감성 문화가 주를 이루는 도심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널 콜은 포스트모던 문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몇 가지로 정리했다. 일보다는 관계, 탁월성보다는 진실성, 논리보다는 체험, 해답보다는 신비, 확일성보다

167) 안영혁, *작은 교회가 더 교회답다* (서울: 겨자씨, 2001), 77.

168)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31.

169) Mark Bauerlein, *가장 멍청한 세대*, 5-13을 참고하라.

는 다양성, 목적지보다는 여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sup>170)</sup> 이미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으로 거대담론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어떤 지식이나 사상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도심 지역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지 교회는 고민해야 한다. 사영리와 같이 논리적 설득으로 이성적 믿음을 얻어내는 식의 복음 전파가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고 삶의 모습에 감동해야 신앙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바로 지금의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는 도심 지역이다. 반대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삶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위선적이라고 적대시하는 문화가 바로 지금의 도심 지역의 정서이다. 지금 도심 지역의 정서는 김장훈 같은 연예인들의 기부하는 모습이나 교황의 소탈한 삶의 모습에 감동하는 분위기다. 교회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 다음 문제이다. 그들은 종교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보다는 종교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도심 지역 시민들에게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감동을 주고,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불신자가 늘 존재해야 한다. 이미 도심 지역의 교회들은 불신자가 교회에 존재하는 것도 당연시하고, 심지어 불신자가 교회에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sup>171)</sup> 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삶에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관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팻말은 과거에는 유효했을지 모르나, 기독교가 삶의 모습보다는 교리를 먼저 강요한다는 면에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복음 전파의 방식이다. 포스트모던 사회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들만이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려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진리인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유보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교회가

170) Neil Cole, *교회 3.0*, 66-89.

171) Timothy Keller, “다원주의 시대 속에 말씀선포,” *목회와 신학*, 2012년 12월호, 274-277.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 할 것이다. 교회는 이단들에 대항하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정립하여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선교 대상들에게 삶의 모습을 통해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성도들의 모습, 풍기는 분위기와 느낌을 먼저 감지한다. 기독교 교리보다는 먼저 교회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즉 성도들이 전하는 교리보다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 디지털 감성 문화 속에서 복음은 공동체적으로 전해져야 한다.<sup>172)</sup> 공동체의 존재방식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개인이 교리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개인에게 논리적 설득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개인이 들어와 함께 대화하며 삶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 널 쿨은 모더니즘 교회들이 믿음, 도덕적 생활, 친교 순으로 우선순위를 삼았다면, 이제는 친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이 도덕적 삶이며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했다.<sup>173)</sup> 교회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섬기는 땀과 수고 속에서 복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하는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주일 사역이 아니라 설교 뿐 아니라 삶을 나누고 섬기는 복음적 삶이 녹아들어 있는 주일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필자는 개척한 교회를 통해 주일에 충분한 교제 뿐만 아니라, 함께 소외된 이웃에게 나아가 봉사를 하며 땀을 흘리며 공감하려 힘쓰고 있다. 그러기 위해 주일에 회의나 기존의 사역을 과감히 줄였다.

## 2. 다양한 취향을 즐기는 문화와 사역

한 개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폐쇄적 경향을 보일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한다. 김종환과 다니엘 산체스와 에비 스미스는 기존의 교회들이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복음이 없는 지역사회보다 자신들의 교회 발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sup>174)</sup> 일정한 기독교적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 그런 문화와 이질적인 것들을 밀어내려는 성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문화는 교회가 추구하는 바이다. 하지만 기독교적

172) Eddie Gibbs, *백스트 처치*, 302-303.

173) Neil Cole, *교회 3.0*, 74.

174) Sanchez and Smith and 김종환, *재생산하는 교회*, 15.

문화는 기독교적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크 레버튼이 이야기한 ‘벽으로 둘러싸인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175)</sup>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비기독교적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깝다. 교회는 이 시대에 기독교적 문화를 만들어가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적 문화를 살아가지 않는 세대들에게 포용적이어야 하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권위와 전통을 거부하는 도심 지역 시민들은 다양한 취향을 즐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다양한 춤과 음악을 즐긴다.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높아진 소득과 생활 수준으로 인하여 도심 지역에서는 문화적인 취향이 대단히 세분화되었다. 특이한 복장을 즐기기도 하고, 다양한 타투를 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매니아들로 세분화되어 간다. 다양한 방송들이 생겨난다. 게다가 자신들이 자신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 방송을 만들어 낸다. 아프리카TV, 팟캐스트, 유튜브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방송물들이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온다. 이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문화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많은 대중이 받아들이는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시대’에서 수많은 문화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내로우캐스팅(Narrowcasting)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sup>176)</sup>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권위적인 사회에서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 같은 것에 동질감을 느끼기 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는 데 더 익숙하다. 이것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도심 지역에서 젊은 세대들부터 교회를 떠나는 이유이다. 앞으로는 탈북한 새터민들이나 결혼이나 취업을 위해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 더 많이 교회로 유입될 것이다. 교회는 말 그대로 선교적 환경이 될 것이다.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취향이 공존하는 곳이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문화적 취향을 강요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일치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때로는 비기독교적 문화를

175) Mark Labberton, *제일소명*, 하보영 역 (서울: IVP, 2014), 41-42.

176) 김도훈, “미디어산업, 서비스 논리 추구해야,” *연합신문*, 2014년 10월 28일자.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위적 사회를 살면서 많은 전통을 쌓아온 한국교회는 탈권위적 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적 취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교회에 받아들여야 한다. 복음 전파와 기독교적 문화의 형성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 다양한 취향을 즐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도심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꼭 필요한 자세이다. 필자는 대단히 보수적 사고를 가진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었다.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보수적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 술과 담배, 세상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 관대한 태도로 포용하려고 노력한다.

### 3. SNS를 통해 소통하는 문화와 사역

우리는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시대에 살고 있다. 국내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이미 4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한국 인구의 80퍼센트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sup>177)</sup> 이 시대 도심 지역에서는 점점 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SNS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사실 이 시대 젊은이들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 24시간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경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밴드나 카톡방등을 통해 모임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

교회는 상담과 대화로 성도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도심 지역에서 특히 젊은이들과 소통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SNS를 통해 성도들과 소통해야 한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만 가능하지 않다. 예수는 니고데모, 삭개오, 수가성의 여인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 자신을 찾아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소통하셨다. 교회가 SNS를 통해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한다. 서로 만났을 때보다 SNS를 통해 더욱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언제나 자신을 표현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과 기성세대들이 스스로 이러한 세대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177) 정도일, “주간 통계 - ‘셀카’를 사랑하는 한국(1.11~17),” 동아일보, 2015년 1월 23일자.



한다. 도심 지역에서의 사역에는 이러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았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 교회는 어떤 변화에도 적응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스스로 낮아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소수의 변화를 거부하는 구세대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는 SNS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보다는 도심 지역, 특히 젊은 세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복음을 심는데 더 유용할 것이다. 필자는 개척 초기에는 홈페이지에 소그룹별로 방을 만들어 서로 소통하도록 배려했다. 지금은 교회전체와 다양한 교회의 모임 별로 밴드를 만들어 서로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다.

#### 4. 주말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문화와 사역

불금(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주5일제가 시행된 후 도심 지역 직장인들에게는 금요일 밤이 달콤한 기다림이자 행복이라고 한다.<sup>178)</sup> 한국 사회는 유난히 회식이 많고 밤 문화가 발달한 나라이다. 젊은 세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직장인들은 업무 혹은 업무 이외의 이유로 대단히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길다.<sup>179)</sup> 젊은 세대들은 매우 힘들고 고달픈 한 주를 보낸다. 그리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금요일 밤 이후를 기대한다. 금요일 밤부터 주말을 통해 도심 지역의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과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즐기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6일을 일하고 하루는 교회에 나오는 전통적 방식의 삶의 패턴이 깨졌다. 5일을 일하고 2일을 쉬는 삶의 패턴이 자리 잡았다. 몇몇 교회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예배를 서비스하고 아무 때나 한 번씩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성도 중심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금요일 밤, 토요일, 주일 밤 예배 등을 신설했다. 주말을 즐기고 여행을 가듯 한 번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주말에 여행 등으로 교회를 빠지지 않게 하려고 주일성수의 개념을 더욱 강화시켰다. 전통적 방식의

178) 민성기, “‘불금’ 연인과 함께 커플 요가를,” *헤럴드경제*, 2015년 2월 9일자.

179) 박상돈, “한국인 근로시간 연간 2천163시간… OECD 2위,” *연합뉴스*, 2014년 8월 25일자.

주일성수 강화 방안으로 주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sup>180)</sup> 주 5일제 시대에 주말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려는 도심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할까 교회는 고민해야 한다.

필자의 주위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의 2박 3일의 시간을 즐기려는 성도들이 많아질까 봐 노심초사한다. 실제로 우려스러운 일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회의 전통 중 하나인 금요철야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 집회를 없애고 있다. 또한 여행 등으로 주일에 빠지는 젊은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회는 소극적으로 예배를 위해 여행을 가지 않는 성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이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차치하고 5일 동안 일하고 2일 동안 쉬는 것은 이미 현실이다. 토요일까지 나가서 일하라고 할 수는 없다. 성도들은 2일 동안을 쉬게 된다. 교회는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다양한 영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도들이 토요일과 주일을 이용하여 예배를 넘어선 진정한 복음적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일을 쉬게 되었다는 것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이다. 신앙교육은 주일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안된다. 서로 삶을 나누고, 힘을 모아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교회는 주일 사역의 연장으로 토요일기도회,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토요일성경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토요일과 주일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누리며,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공유함으로 복음에 충실한 삶을 훈련할 수 있다. 토요일에서 주일까지 기독교 신앙을 훈련하고, 기독교적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들을 제시한다면, 성도들은 복음적 삶이 훈련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180) 강민석, “‘저녁예배 되살려야 온전한 주일성수’... 예정합동 심포지엄,” 국민일보, 2014년 10월 28일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은 27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 회관에서 ‘즐거운 주일성수 복된 신앙생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상당수 교회에서 없었던 주일 저녁예배를 되살려 주일이 크리스천 생활문화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규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목회자들이 성경 기준에 따르지 않고 편의를 추구해왔다”며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주일 오전 성경공부, 대예배, 저녁예배를 엄격하게 지키고 청교도주의적으로 주일성수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도들이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교회는 토요일 오후 시간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가족 안에 신앙적 소통이 일어나도록 돕는다.<sup>181)</sup> 토요일에 가정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다. 필자의 교회 교회는 토요일 이른 저녁에 기도회를 진행하여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었던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와는 다른 영적성찰의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공동체적 교제모임과 정기적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섬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도들이 이웃과 소통하게 한다. 교회가 이렇게 토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성도들이 지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참여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된다.

##### 5. 도심 지역 건강한 교회 개척을 위한 탈권위적 리더십

날 쿨은 앞으로 교회를 타이타닉호에 비유하면서, 모더니즘 가치관을 받아들여 달려오던 교회가 변화된 세상에서 큰 빙산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sup>182)</sup> 앞으로 사회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교회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면서도 변함없는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 이후로 엄청난 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취업했던 지금의 30대, 나아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로 취업했던 지금의 20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개척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 앞으로 그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교회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복음적 삶으로 감동을 주는 교회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고민들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SNS를 통해 새로운 세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착된 주5일제에 맞는 주말사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세대들에게 신뢰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181)곽성덕,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운다,” 월간목회, 2014년 8월호, 88.

182) Neil Cole, 교회 3.0, 88-89.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는 탈권위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성육신적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을 전통으로 고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빌 이섬은 역기능적 시스템의 수령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곡선에서 기어 올라오려 하는 교회들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고 말한다.<sup>183)</sup> 이 시대가 탈권위의 시대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은 80년대 민주화 항쟁 이후 지난 30년 간 유교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탈권위주의 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권위주의는 한국교회 성장기에 성경의 권위와 목회자의 권위를 높여 복음을 담기 좋은 그릇이었으나, 이제는 가장 복음을 담기 힘든 그릇이 되고 말았다. 권위를 내세우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이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회는 새 부대의 리더십을 개발해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 교회 재정의 공개 등은 신학적인 논쟁의 요소가 아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탈권위의 과정이다.

탈권위의 리더십은 지위나 나이와 같은 당위적인 요소로 권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목사이니까 존경받아야 한다든지, 아버지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인격적인 동등함을 요청하는 새 세대에게는 탈권위의 리더십으로 소통하여 실제 인정받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5단계를 제시했다. 1단계는 지위, 2단계는 관계, 3단계는 성과, 4단계는 인물개발, 5단계는 인격이다. 높은 단계로 갈수록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sup>184)</sup>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지위가 높고 관계가 좋다고 해서 리더십을 느끼지 않는다. 얼마나 성취를 이루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개발해주고, 높은 인격을 소유했는가로 리더십을 평가한다. 이 시대 젊은이들은 20대에도 성공하고, 자신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대단히 권위를 느끼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권위를 느끼지 않는다.

교회는 무조건 진리를 외치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는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한다. 교회는 탁월한 도덕성으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

183) Bill Easum, *Leadership on the Other Side: No Rules, Just Clues* (Nashville:Abingdon, 2000), 39. Micheal Frost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339에서 재인용.

184) John Maxwell, *리더십 101*, 김정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1), 57-70.

면 이 시대 젊은이들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며,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예수향남교회는 비전기도회를 실시한다. 1년의 목회의 계획을 모든 성도들의 토론을 통해 이끌어낸다.<sup>185)</sup>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회자의 사역에 동역한다. 이러한 탈권위의 리더십으로 교회는 크게 부흥했고, 지역사회를 바꾸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 시대 진정한 권위는 이러한 탈권위적 리더십에서 나온다. 특히 건강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유교문화 속에서 나온 권위주의적 요소들을 버려야 한다.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중하는 탈권위적 리더십을 통해서만 도심 지역의 변화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 정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라고 강조하면서 리더십에 초점을 다시 맞추는 일은 교회의 갱신과 성장에 너무나도 본질적인 것이라고 했다.<sup>186)</sup> 새롭게 개척된 교회에는 새로운 사명이 있다. 새로운 사명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것은 목회자 자신의 변화를 위한 치열한 자기 고민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 제 5 절 건강한 교회 개척을 위한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 준비

지금까지 도심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목회자의 준비와 도심 지역의 전반적 특징, 젊은 세대의 세대적 특징, 문화적 특징을 통해 개척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이다. 빌 하이벨스는 성경에서 제시한 대로 우리가 제 기능을 다하는 교회공동체가 되고, 모든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sup>187)</sup>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건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전인적인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

185) 정갑신, “목회비전, 나는 이렇게 세웠다,” *목회와 신학*, 2013년 12월호, 51.

186) Micheal Frost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299-300.

187) Bill Hybels, *섬김의 혁명*, 서원희 역 (서울: 두란노, 2004), 16-17.

해 섬기는 성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독교 세계관과 교리 양육, 성경 교육, 기타 실제적 양육, 실천적 훈련 프로그램 등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한다.

### 1. 기독교 세계관과 교리 양육

작은 공동체로 미국 사회 전역을 섬기는 세이비어 교회의 힘은 섬김의 리더십 학교(Servant Leadership School)에서 나온다. 이 학교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섬기는 리더를 훈련시켜 세우는 사역을 목적으로 한다.<sup>188)</sup> 세이비어 교회는 이 과정을 통해 교회의 목회철학을 공유하며, 동역자를 길러내고 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성경적인 복음의 내용이 공유되지 않으면 교회라 할 수 없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여야 한다. 따라서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가르쳐 기독교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정확히 양육해야 한다. 유경상은 회개와 변화를 위한 뜨거운 집회를 연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존의 사고방식과 삶을 바꿔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한다.<sup>189)</sup> 복음의 내용을 양육하면서 특별히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세계관을 훈련하며, 목회자가 이루려는 공동체의 방향과 목회철학이 공유된다면 강력한 사역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예배를 통해 이런 양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예배는 체계적으로 교리를 설명하거나 세계관을 강의하고, 여러 삶의 고민들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개혁을 위해 목회자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양육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복음적 신앙인을 양육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과 같이 오랜 유교적이며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 지배했던 사회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양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이단의 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는 성경적인 기독교 교리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필자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필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거기에 기독교 기본 교리와 이단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들어 개척 2년차부터 '디모데훈련'이라는 6개월

188) 유성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교회* (서울: 평단, 2005), 72-75.

189) 유경상, *크리스천 씽킹* (서울: 카리스, 2011), 10-11.

짜리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의 거의 모든 성도들을 순차적으로 양육했다. 개척 초기에 예배와 소그룹만으로 목회를 하다가, 개척 멤버를 제외한 성도들에게 목회철학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교리뿐만 아니라 필자의 목회철학을 공유함으로 교회가 하나되는 데 매우 큰 유익을 얻었다.

## 2. 성경 교육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알고 싶어한다.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목회자는 성경 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흥정길은 교회를 개척할 목회자의 기본적 자질 중 하나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90)</sup> 성경을 교육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본문 중심 성경공부, 성경 개관 성경공부, 성경 통독, 다양한 성경강좌를 통해 성경을 교육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포괄적이면서도 쉽게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 교육을 통해 교회는 큰 유익을 얻는다. 우선 성경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 좋은 변화를 일으킨다. 또한 예배 중 설교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성경을 많이 공부한 성도들은 교회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들과 성경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 줄 수도 있다. 목회자는 훌륭한 성경 교사여야 한다. 그럴 때 목회에도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성경 교수법을 개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목회에 더없이 좋은 성령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성경을 다양하게 공부하고 가르치려 힘썼다. 그리고 더 쉽게, 더 포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다. 필자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강의하고, 통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교육한다.<sup>191)</sup> 이 교육을 통해 성도들이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로 변화되고 있다. 성경을 교

190) 목회와 신학 편집부, *교회 개척*, 107.

191) 필자의 성경교육에 대해서는 본인의 저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 관통* (서울: 넥서스 크로스, 2014)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신약 관통* (서울: 넥서스 크로스, 2014), *세상의빛교회 홈페이지*(www.fnchurch.org)를 참고하라.

육하니 성도들이 설교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통독할 마음도 생겼다고 고백한다.

### 3. 기타 실제적 양육

기독교 세계관과 교리 교육, 성경 교육 이외에 목회자의 달란트에 따라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돕는 다양한 양육을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과거에 상처가 많았던 성도들을 위해 성경적 치유를 위한 양육을 하는 것도 좋다. 개인적인 상담을 겸한 일대일 양육을 통해 초신자를 양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리더십과 부부관계를 위한 양육도 필요를 따라 실시한다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전도, 가정, 어머니나 아버지, 나아가 직장인과 경영인을 위한 성경적 양육도 있을 수 있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힘든 부분이라면 주위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양육을 통해 성도들은 삶에 실제적인 부분에 조언을 얻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다.

필자는 일대일양육을 통해 개척 초기에 성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성도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떤 목회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조망을 얻는 좋은 시간이었다. 또한 리더십을 위한 8주간의 프로그램, 부부를 위한 8주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했다. 주로 젊은 부부들과 직장인이 많았던 교회의 상황을 고려한 시도였다.<sup>192)</sup>

### 4. 실천적 훈련 프로그램

모든 교회의 양육은 이론으로 끝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실천적 훈련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 성경만 공부한다고 좋은 성도가 나오지 않는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좋은 성도가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들 나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섬김과 봉사과 선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와 양육의 과정에 얻을 수 없었던 감동과 깨달음을 얻는다.

192) 필자가 시도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상의빛교회 홈페이지([www.fnlchurch.org](http://www.fnlchurch.org))를 참고하라.



필자의 교회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실천적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회의 모든 양육은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필자의 신념의 실천이었다. 주일 오후에 여러 곳의 봉사처를 연결하여 현장에 나가 청소하고 빨래하며 섬겼다.<sup>193)</sup> 토요일에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세움공동체'의 사역에 동참했다.<sup>194)</sup> 또한 해마다 세 차례 해외선교지 봉사를 떠난다. 명절, 연휴,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세 차례 실시하여 연중 삶으로 복음을 실천할 기회를 마련한다. 교회개척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면, 이러한 실천적 훈련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다. 물론 예산도 마련해야 하고, 성도들이 희생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선행될 때 가능한 일이다.

---

193) 필자가 개척한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처는 주사랑공동체, 맨엘의 집, 샘물의 집, 샬롬의 집, 세움공동체 등이다.

194) 세움공동체는 관악구 난곡동에 소재하며,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을 무료급식하며 섬기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식사 전에 제공한다. 자세한 것은 세움공동체 카페 Online: <http://cafe.daum.net/yssharon> 참고.

## 제 5 장

### 세상의빛교회 개척의 실제와 현황

4장을 통해 도심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초동에 2006년에 개척된 세상의빛교회의 개척의 실제와 현황을 다룬다. 먼저 교회의 모토와 비전을 형성과정부터 자세히 살피고, 세상의빛교회의 역사와 성장과정, 다양한 사역들과 그 열매들을 살펴보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평가와 발전 방안을 다룰 것이다.

#### 제 1 절 교회의 철학과 비전

도심지역에, 그것도 이미 오랜 전통을 가진 대형 교회들이 즐비한 도심지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 보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교회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면서 동시에 시대를 품는 목회철학을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그 목회철학을 구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회자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역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처절한 고민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1. 목회철학의 형성과정<sup>195)</sup>

1995년 가을, 필자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세겨주신 주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었다. 성경과 교회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지만, 아버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아 신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30대 초반에 전 재산을 팔아

<sup>195)</sup> 이종필, “나의 목회철학-세상의빛교회,” 월간목회, 2014년 12월호, 112-115를 참고하라.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동안 여러 교회를 개척하시고, 중간에 목회가 어려워진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신 아버지께서 마지막 사역하신 교회에서 아버지를 도와야 하는 예비 신학생으로서 자연스럽게 목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다.

교회의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 것은 신학대학원 1학년 말에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교회를 떠나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부터이다. 그로부터 7년 동안 두 교회에서 섬기며 교회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1998년에서 2005년까지 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은 늘 나를 흥분시켰고, 나는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다. 두 교회에서 보낸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나의 열정을 불살랐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교회’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교회는 사회에서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러한 교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내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언론은 그 교회를 보도했다. 나는 교회에서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다. 아니 찾기 싫었지만,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주된 사역대상이었던 젊은이들은 무엇보다 교회의 도덕적 문제들에 민감했다. 그들은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매우 비판적으로 변해갔으며,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 다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변화와 기대가 없이 회의적으로 변해갔다. 교회와 신앙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적었다. 교회에 아무 기대를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점차 많아졌다. 그런 젊은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목사님들도 열심을 다해 목회하고, 성도들도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데, 왜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일까? 새로운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고도 쉽게 답을 찾지 못했다.

## 2.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모토 : 신앙과 삶의 일치

플러 신학교 총장 마크 래버튼은 오늘날 미국 교회는 물론 한국교회도 사회비판과 성도감소로 위기감이 높는데, 이 위기의 본질은 복음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이라고 지적한다.<sup>196)</sup> 필자가 교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던 나

196) 박민균, “신행 불일치가 교회위기의 본질 실천 못하면 복음 땅 속에 묻혀,” 기독교신문, 2014년 11월 4일자.

는 여러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내가 사역을 시작했던 1995년은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정체, 감소하기 시작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고민에서 멈출 수 없는 충격적인 통계였다. 몇몇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는데 한국교회 전체가 감소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사역을 하던 가운데 2000년대 초반에 한 설문조사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한 그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신앙과 삶의 불일치였다. 이것은 내 삶에 던져진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신앙의 삶의 불일치’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측면에서 볼 때 자신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적일 것이다. 동시에 함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생존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세상의빛교회가 제시하는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모토는 여러 설문조사에 대한 보도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이다.<sup>197)</sup>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불행할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기독교신앙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3:35). 신앙과 삶의 일치는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것은 복음의 미래를 위해, 또한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으

197) 서화동, “한목협, 목사 500명 설문 “신자 78%는 신앙과 삶 일치하지 않아”, 한국경제, 2013년 5월 31일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대표회장 전병금 목사)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인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3.0%는 ‘일치하는 편’이라고 답한 반면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 78.6%,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4%였다. 또한 목회자의 자신이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레슬리 뉴비긴은 '복음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의거해 살아가는 남녀로 구성된 회중'이라고 말했다.<sup>198)</sup> 복음을 받아들인 회중인 교회(삶의 내용)가 입증하지 못하는 복음(신앙의 내용)의 문제는 이 시대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는 현실적으로 교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며, 동시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나아가 교회가 전하는 복음(신앙의 내용)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가시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방식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샤머니즘적 제의, 타오르는 신앙적 열정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것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변화에 대한 훈련으로 가능해진다. 신앙과 삶의 일치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수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경건을 훈련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힘쓸 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마 5:13-16, 요 15:1-12).

교회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공동체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신앙과 삶의 일치 공동체는 필자의 목회철학이 되었고, 세상의빛교회의 모토가 되었다. 세상의빛교회는 이러한 고민에서 잉태되었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탄생했다. 그리고 필

198)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419.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 3. 세상의빛교회의 4대 비전 : 도시 미래 선교 복지

구체적으로 세상의빛교회는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모토로, 네 개의 비전을 설정했다. 도시, 미래, 선교, 복지. 첫째는 세속화된 도시 속에 복음으로 무장되고, 공동체적 생활이 훈련된 건강한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둘째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래의 지도자로 양육하는 것이다. 셋째와 넷째는 선교와 복지이다. 이것은 도시 속에 형성된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래의 지도자로 양육되었을 때의 결과이기도 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구성원들을 양육하려는 목적이기도 하다.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선교라는 말로,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복지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렇게 선교와 복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꿈꾸며 지금까지 달려온 교회가 세상의빛교회다.

이 모토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자는 강남역 주변을 선정했다. 그 이유는 첫째 신앙과 삶의 일치를 모토로 하여 4대 비전을 이루는 교회라는 목회철학과 비전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많은 곳이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필자가 사역하며 느낀 강남 지역은 한국에서 가장 복음 화율이 높고 대형교회가 많지만, 최근 교회들의 추문들로 인해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적 회의가 높고 교회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높은 곳이다. 이 문제를 도심 지역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체감적 위기의식이 강남 지역을 택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대학을 다닐 때부터 강남 지역에 사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고, 교회를 사역하는 과정에서도 강남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영적 필요에 공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제 2 절 세상의빛교회의 역사와 성장과정

### 1. 개척 직전(2005-2006년) : 전통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고민

마크 레버튼은 “세계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지역이 있는데, 전통을 따르지 않는 곳이다. 이에 비해 전통을 따르는 지역은 성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시대와 문화가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sup>199)</sup> 교회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새롭게 연구하고 찾아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전환기에 있다.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전통은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교회에 의미가 있었다. 이제는 한국교회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분명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유래 없는 선교의 성공 사례이기도 하다. 목회자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열심은 대단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한국교회의 전통적 사역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어려워졌다. 이제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는 교회를 고민해야 한다. 변화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에 알맞은 교회로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 세상의빛교회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잉태되고 있었다.

필자는 2004년부터 개척을 위한 기도회를 가정에서 진행했다. 개척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05년 2월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기도하던 중에 개척에 대한 매우 확실한 소명을 받게 되었다. 2005년 6월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에 대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개척 멤버를 구성하는 일부터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 재정을 모으는 문제도 이 시기에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교회의 모토를 실제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였다. 전통적인 교회의 바탕에서 개혁해야 할 것들을 고민하고, 몇 가지를 정했다. 우선 건물 임대, 새벽기도회, 주일예배, 금요기도회 등 전통적인 틀을 유지하되,<sup>200)</sup> 우선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삶을 돌아보는 소그룹을 주일 오후예배 대신에 정착시키는 것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위해 성가대를 조직하지 않는 것 등을 정했다. 그리고 교회이름은 개척 멤버 10여 명이 교회가 개척되

199) 박민균, “신행 불일치가 교회위기의 본질 실천 못하면 복음 땅 속에 묻혀,” 기독교신문, 2014년 11월 4일자.

200) 2년 후에 새벽기도회는 도심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야기도회로 변경했고, 금요기도회는 토요일기도회와 병행하여 실시했다.

기 두 달 전쯤 인테리어를 하면서 정했다. 이 시기는 전통의 장점을 이어가면서도 전통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고민을 하는 시기였다. 교회의 전체적인 틀이 많이 형성된 시기였다.

## 2. 개척 초기(2006-2007년) : 한계의 극복 방안에 대한 실험의 시기

세상의빛교회는 90평 정도 되는 서초동 빌딩 지하를 임대하여 2006년 2월부터 예배를 시작했고, 3월에 설립예배를 드렸다. 개척 멤버는 대체로 미혼이었던 15명 정도였다. 개척 후 몇십 명이 왔다가 정착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시간이 2년 정도 흘러갔다. 이 시기는 교회가 숫자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시기이다. 2008년 초가 될 때에도 교회는 30명 정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이 시기는 한국 전통 교회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실험을 하는 시기였다. 엄밀히 말하면 필자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목회자로서 비교적 젊은 35세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필자의 목회철학을 구현하는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준비의 부족으로 인해 교회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왔던 지체들이 떠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개척 전에 결정한 것들을 실행했고, 긍정적인 면도 발견했다. 하지만 양육을 하지 않고 실천에 치중하다보니 공동체가 방향성을 잃는 부작용도 있었다. 또한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목회자 자신에게도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목회자도 교회 공동체도 준비되는 시기였다.

앤디 스탠리는 처음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뒤죽박죽의 운동이었고, 그 운동의 메시지는 레이저처럼 초점이 명확했고 사명은 온 세상을 품었다고 말한다.<sup>201)</sup> 교회는 주일의 예배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며, 예산이나 숫자, 건물로 평가될 수 없었던 하나의 무형의 생명력 있는 운동이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어놓는 운동력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다. 교회에서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운동력이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들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 고민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까지도 소망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 모두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

201) Stanle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56-57.



고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가 끝날 즈음에 세상의빛교회는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며 한계를 극복하는 교회라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몇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숫자적인 부흥을 바라보지 말자는 것과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 교육을 위한 양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새벽기도회를 심야기도회로 변경하자는 것 등이었다.

### 3. 교회의 성장(2008년부터 현재까지)

2008년부터 교회는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소그룹 사역을 중심으로 한 세트의 예배를 기획했다. 전통적인 대그룹예배에 식탁교제와 삶의 나눔을 위한 소그룹예배까지 이어 3시간짜리 예배가 탄생했다. 대그룹예배와 소그룹예배의 결합이었다. 이렇게 예배를 개편하기 위해 장의자를 치우고, 이동이 편리한 접이식 의자를 택했다. 김성진은 교회를 개척할 때 자신의 은사와 기질, 사역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사역의 준비를 한 후에 교회 시설도 그에 준하여 단장하라고 강조한다.<sup>202)</sup> 필자는 공간적 한계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공간적 준비까지 하는 데 개척 후에도 거의 3년이 걸렸다. 그 후 거의 모든 성도들이 3시간짜리 예배를 받아들였다. 대그룹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고 소그룹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선물 받았다.

필자는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이 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을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했고, 동의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과는 결국 헤어짐을 맞보아야만 했다. 소그룹예배까지 포함된 교회의 예배에 부담을 가지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숫자적 성장을 도모할까 생각도 했었고, 더 좋은 건물로 이전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고집스럽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다.

예배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을 실현하여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를 목표로 하며 하나하나 정착시켰다. 그렇게 정착된 프로그램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독교 세계관과 교리 양육인

202) 목회와 신학 편집부, *교회 개척*, 75-77.

‘디모데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관점 성경통독’이다.

필자는 ‘디모데훈련’을 세상의빛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규정했다. 직분을 받거나, 소그룹리더가 되거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공유하여 하나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성도들과 영적으로 하나되었다고 확신한다.

필수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 성경통독’ 프로그램이 있다. 단순히 진도를 정하여 성경을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강의하고, 매주 통독할 분량에서 핵심 구절들을 뽑아 함께 읽고, 집으로 돌아가 개인이 통독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성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하나가 된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 세상의빛교회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현대 젊은 세대들을 개방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으로 바꾸고, 나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소통하는 영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와 복지의 삶이 생활화되도록 훈련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세상의빛교회는 3시간짜리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적 공동체를 소유한다고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이웃과 소통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주일 오후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역하는 여러 공동체와 연계하여 봉사에 참여하고, 나아가 해외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연중 여러 차례 해외 단기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교회의 핵심 사역은 주일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상의빛교회는 주일에 예배(하나님을 체험, 하나님의 뜻을 공유함)-소그룹(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인적인 결단나눔과 공동체적 소통과 치유)-이웃에 대한 봉사(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훈련)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모두가 똑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이 이 과정을 따라 삶의 변화를 결단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으로 훈련되고 있다.

성도들이 세상의빛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이러한 주일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봉사만으로 채워졌던 주일에 예배-소그룹-이웃에 대한 봉사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성도들은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교회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예배나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본질을 벗어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외적 형식을 제공한다면 그것을 프로그램이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어떤 공동체로 양육해야 할 것인지 분명한 사역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교회를 숫자나 예산이나 건물로 평가한다면, 세상의빛교회는 거의 성장하지 않은 교회나 다름없다. 교회 소유의 건물도 없고, 예산도 그리 많지 않고, 숫자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성장을 한 것은 아니다. 성인 성도 70여 명에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합쳐 약 100여 명 출석하니까 개척 때보다 조금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빛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 글로 증명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빛교회의 진정한 성장이다. 수많은 변화의 간증이 있으니, 세상의빛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여기에 있다. 성도들 대부분이 단기 선교 사역과 복지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 제 3 절 다양한 시도들과 그 열매들

앤디 머레이는 그의 책 *노스포인트 교회이야기*에서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다섯 가지 방법들을 제시한다.<sup>203)</sup> 1) 실제적 교육, 2) 개인적 훈련, 3) 직접적 사역, 4) 섭리적 관계, 5) 중추적 환경이다. 어느 교회에나 그 교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203) Stanle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115-168 참고.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빛교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시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다.

### 1. 예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는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기초 행위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행위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이 예배를 통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영적 교감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충만한 경배의 행위를 받으시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예배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성례 등으로 이루어진다.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에 사용되는 찬양과 말씀의 문화적 색채는 청중들의 문화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늘 예배를 고민해야 한다고 믿는다.

요즘 현대 예배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현대예배(Contemporary Worship)는 현대적인 문화와 사회적 요소가 회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기획된 예배다. 이것은 늘 예배가 새로워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형식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의 의도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시대의 문화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유재원은 현대적인 예배를 1)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Seeker-Sensitive Worship), 2) 통합적 예배(Blended Worship), 3) 대안예배(Alternative Worship), 4) 이머징 예배(Emerging Worship)로 나눈다.<sup>204)</sup> 세상의빛교회는 전통적 예배의 형식이 강하지만,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통합적 예배를 고민한다. 전통적인 형식이 강하지만, 늘 젊은 세대들에게 맞게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계획하려 힘쓴다. 개신교 예배의 중심은 설교에 있다. 세상의빛교회 설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말씀 사역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실제 삶에서 그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예배의 전문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전문적인 예배팀과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기획, 훌륭한 찬양과 음향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형편이 된다면 갖추고 싶은 것이다.

204) 최원준, “예배, 예전과 문화가 만나다,” *목회와 신학*, 2012년 4월호, 38-41.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대형화의 산물이다. 대형교회만이 예배의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다. 대형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의 전문성의 그늘에는 대형화에 따른 공동체의 약화 내지는 부재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즉 전문적인 예배 기획은 모든 교회의 소망이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방향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예배가 공연처럼 되어가거나 일종의 감동적인 퍼포먼스가 되어간다는 비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세상의빛교회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2. 소그룹

예배는 결국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완성된다. 레슬리 뉴비긴은 복음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의거해 살아가는 남녀로 구성된 회중이라고 말했다.<sup>205)</sup> 결국 지금까지 논의한 예배의 성패는 삶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전인적 삶의 서론인 것이다. 세상의빛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목적은 바로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회중을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세상의빛교회 예배는 주일의 예전적 예배에서 끝나지 않는다. 예배 후에 모든 성도들은 소그룹예배로 다시 모인다. 세상의빛교회가 소그룹을 예배로 부르는 것은 한국에서 주일에 두 번의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빛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린다는 뜻으로,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소그룹예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결단하며,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다. 이후에 성도들은 교제한다.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기도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소외된 자들을 섬긴다. 이렇게 무장되고 준비된 후에 예배의 완성을 위해 삶으로 나간다(롬 12:1-2).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

205)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419.

아가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개인의 구체적인 결단까지 이어가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영적인 상황을 소통할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다. 서로의 결단을 들어주고, 함께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소그룹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개인적 결단으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하다. 성숙한 소그룹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에 변화를 일으켜 공동체 전체에 치유를 일으킨다.<sup>206)</sup>

세상의빛교회 소그룹 사역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할까 고민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세상의빛교회는 주일 오후예배를 전통적 방식에서 소그룹예배로 전환했다. 즉 주일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을 먹고 오후나 저녁에 다시 교회에 모여서 전체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예배 이후에 곧바로 점심을 겸하여 두 시간 정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소그룹예배를 시도했다. 한국의 구역이나 셀모임은 대체로 주중에 이루어져 과반 이상의 성도가 참여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일에 소그룹을 시도했다. 소그룹예배가 정착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을 설득해야 했고,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성도들과 대화해야 했다. 나아가 소그룹을 통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미성숙한 모습도 언젠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다. 또한 과거의 방식에 익숙한 리더들이 소그룹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문제도 있었다. 인도자가 가르치는 식의 일방적 스타일을 벗어나서 진정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기까지, 세속적인 잡담의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영적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소그룹이 되기까지 계속된 리더 세미나를 시도하였다. 대그룹예배에 이어지는 소그룹은 모든 회중이 목회자의 설교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일상의 삶으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소그룹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 행해진다. 또한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과 맡겨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sup>207)</sup> 소그룹에 소속된 성도들은 자신과 함께 기도하며, 인생을 함께 살아갈 영적 동반자를

206) 옥한흠, 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111, 114.

207) 이러한 사역의 원리는 셀그룹 사역의 원리와 Neil Cole의 LTG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었다.

얻는다. 주일에 소그룹예배를 통해 영적 공동체를 갖게 된 남자 성도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모든 남자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얻게 됨으로써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 소그룹을 통해 세상의빛교회에는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구현되고 있다.

### 3. 이웃봉사활동

안영혁은 한국 개신교가 초기부터 탈사회적이었고, 7-80년대에 한국 기독교의 주류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으로 흘러왔다고 지적한다.<sup>208)</sup> 지금은 한국교회가 봉사를 많이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에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적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상의빛교회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모토로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훈련하고, 현장에서 봐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개척되었다. 따라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하여 주일에 여러 기관들을 선정하여 직접 봉사활동을 시도했다.

보통 교회들이 교회 내에서의 봉사는 많은 반면 이웃을 섬기는 봉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교회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관심은 많은 반면 세상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필자는 적은 시간이라도 주일에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면, 삶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평일에 팀을 구성하면 대다수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주일에 시간을 할애했다. 전 성도가 소그룹예배에 참여하고 봉사에 가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성가대는 조직하지 않았다. 성가대의 유익보다는 실제로 삶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의 기회를 택한 것이다. 성도들은 주일 오후에 장애우시설이나 보육을 위한 그룹홈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시설을 방문하여 각종 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사실 긴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중계명을 실제로 실천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도들의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게 커져 가며, 선교와 구제를 위한 제정은 날로 풍성해졌다. 설교를 통해 배울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현장을 통해 배우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해가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던 중 새로

208) 안영혁, *작은 교회가 더 교회답다*, 63-64.

운 비전을 받아 사회복지사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성도도 있다. 평생 한 번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봉사한 경험이 없었는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을 직접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 늘 경쟁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 내의 봉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 4. 다양한 기도회

세상의빛교회는 새벽기도회를 심야기도회로 전환하고, 기존의 금요기도회를 금요일과 토요일로 나눠 격주로 모인다. 한국교회의 기도의 영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점점 밤 시간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진 젊은 직장인들은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또한 교회들마다 금요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 세상의빛교회는 기도의 영성을 계승하기 위하여 심야기도회와 토요일기도회를 신설한 결과 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다. 주 5일제 상황에서 야근이 많은 직장인들이 토요일 저녁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모이게 되었다. 세상의빛교회는 한국교회의 기도의 전통을 시간을 바꿔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도들이 기도회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금요일과 토요일 기도회에서는 찬양, 말씀, 통성기도 순서 이외에 공동체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4-5명씩 모여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다.

필자는 기도의 내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교회 안에는 기도의 이론과 실제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성경적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기도에서 정성이나 시간을 강조한다든지, 기도의 내용이 매우 세속적이라는 면에서 샤머니즘적 기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유헤롱은 건강한 기독교적 기도를 제안하면서, 기독교적 기도와 샤머니즘적 기도를 구분한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행위다. 샤머니즘적 기도는 종교의 대상을 향해 자신을 굴복시



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더욱 강화시킨다.<sup>209)</sup>

교회 공동체의 개개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따라 결단했지만, 삶 속에 여러 유혹들을 만난다. 현실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늘 현존한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 받아 소그룹을 통해서 구체화된 삶의 결단들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는데 종종 실패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속적인 기도생활을 통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지속적인 기도생활은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소원들을 아뢰는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매일 제공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며, 훈련된 성도는 개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매일 저녁의 심야기도회와 금요일, 토요일을 통해 주어지는 공동체적인 기도회는 주일의 프로그램과 어우러져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준다.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기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심야 시간과 토요일 시간은 현대인들에게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다.

##### 5. 다양한 봉사와 단기사역 프로그램

한국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매우 잘 훈련되어 있다. 자신들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는 익숙하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뜻을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기 쉽다. 심지어는 교회생활도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교회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삶과 전혀 다른 것이 된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연습이 필요하다. 봉사와 선교는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공동체의 개개인들에게 예수께서 전하신

209) 유해룡, “건강한 기독교적 기도,” *목회와 신학*, 2013년 8월호, 32-33.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훈련한다. 따라서 교회는 자체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봉사나 참관을 위한 선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보다는 세상을 섬기고, 실제적으로 선교지를 체험하고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세상의빛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하나되기 위하여 연중 세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단기사역을 떠난다. 명절을 통해, 징검다리 연휴를 통해, 여름휴가를 통해 성도들은 다양한 나라로 작은 사명을 들고 나간다. 물론 자비량이다. 성도들을 세계의 선교현장을 돌아보고 작은 일에 헌신함으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로 성장한다.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단기사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상관없이 다양한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한다. 심지어 남편이 아이들을 봐주고 아내가 단기사역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다고 조심스레 지난 9년을 정리해 보며 감사의 미소를 짓게 된다.

#### 6.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

레슬리 뉴비긴은 복음이 신빙성을 얻어 기독교가 공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우리가 맨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기독교 회중이라고 말했다.<sup>210)</sup> 지난 9년 동안 세상의빛교회에 폭발적 성장이나 외형적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아마 그런 성장을 추구했어도 되지 않았겠지만, 그런 성장이 있었다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의 틀은 갖춰지지 않았을 것이다. 위에 열거한 여러 사역들로 인해 작은 공동체인 세상의빛교회의 기독교 회중에게서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삶의 변화를 통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첫째,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와 고민들이다. 이것은 지면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성도들이 종교적 형식을 넘어서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매우 열심히 애쓰고 있다. 세상의빛교회 성도들은 주일성수, 십일조 등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뛰어넘어 삶의 변화를 위해 고민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매우 고민한다. 이것만으로도 이전에 내가 사역하면서 보지 못했던 열매를 거두

210)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419.

고 있는 셈이다. 배성우는 세상의빛교회의 사역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한 창의적 몸부림’이라고 표현했다.<sup>211)</sup>

둘째, 성도들의 역동적 섬김과 선교의 일상화이다. 요즘 선교적 교회가 유행이다. 세상의빛교회 성도들은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도 알지 못하지만, 이웃에게 봉사를 통한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을 전하고, 실제 여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단기사역으로 섬기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도들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성도들의 70% 이상이 이미 해외 단기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며,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선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기대 이상의 열정을 쏟아주고 있다. 그야말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셋째, 자기 부인의 교회생활이다. 세상의빛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거나 교회에서의 공로를 뽐내지 않는다. 이런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것은 비전과 목회철학에 동의한 개척멤버들의 자발적 헌신과 자기부인의 문화가 전달된 결과이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거의 볼 수가 없다. 아직 장로도 없고, 다수의 성도들이 직분도 없지만, 소수의 직분을 맡은 자들도 권위의식을 찾기 어렵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 고민하고, 서로 희생을 감수한다.

15명 정도로 시작한 교회가 이제 성인과 아이들을 합쳐 100여명이 되었으니 은혜로 성장한 것에 감사하지만, 숫자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다. 하지만 숫자나 교회 건물이나 재정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좋은 열매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전에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공동체들과 다른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된 것에 대해 가장 감사하게 된다. 필자의 고민을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 7. 다양한 사역의 동력 : 하나님 나라 관점의 말씀운동<sup>212)</sup>

세상의빛교회는 이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성도들과 말씀으로 소통한다. 어느 교회나 성경을 열심히 읽겠지만, 세상의빛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고 일 년에 한 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씀을 통독한다. 예배 중 설

211) 배성우, “신앙과 삶의 일치를 향한 창의적 몸부림,” 목회와신학, 2014년 8월호, 136-139.

212) 필자의 책들과 말씀운동과 세미나에 대하여 세상의빛교회 홈페이지([www.fnichurch.org](http://www.fnichurch.org))를 참고하라.

교는 모든 성도들이 듣게 되지만, 양육과 통독은 신청한 사람들만 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과 통독을 신청한다. 계속된 말씀운동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위에서 말한 사역들이 이루어진다. 결국 하나님 나라 관점의 말씀운동과 계속된 기도운동이 모든 사역에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핵심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길은 없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경험도 없었고, 모델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다. 따라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목회 초기에 성도들에게 소그룹의 원리에 대해 양육하지도 못했고, 목회자 개인의 인격적 부족함으로 상처를 주는 일도 많았다. 아직도 세상의빛교회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건강한 목회를 위한 성경적 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다.

얼마 전부터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말씀운동을 나누기 위해 책도 출판하고 세미나 사역을 하며 건강한 교회운동을 확산하게 되었다. 앞으로 좋은 교회를 고민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스스로 겸손해지는 동시에 소망을 갖게 된다.

#### 제 4 절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사역 평가와 발전 방안

스탠 톨러와 앨런 넬슨은 교회가 두려움으로 사역을 평가하는 것을 회피한다고 지적하면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교회가 도구를 개발하여 스스로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sup>213)</sup> 필자는 먼저 자체적인 교회론과 목회철학에 기초하여 세상의빛교회를 평가하고, 나아가 다른 두 학자들의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평가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213) Stan Toler and Alen Nelson, *파이브 스타 교회*,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2002), 187-188.

### 1. 세상의빛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한 평가

유성준은 150명의 적은 교인 수로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이비어 교회를 소개했다.<sup>214)</sup>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대형화되었지만, 엄청난 사회의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좋은 모델이다. 이 시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목회를 하거나 개척을 하게 될 것이다. 안영혁은 한국교회가 성장정체, 교회 구조, 사회봉사, 문화변혁 등 모든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혔음을 지적하면서 작은 교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sup>215)</sup> 세상의빛교회는 반드시 작은 교회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적인 성장보다는 교회의 건강함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도심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개척되어 성장하고 있는 세상의빛교회의 목회철학과 역사, 다양한 사역과 그 열매들에 대해 약술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의 교회론과 그에 따른 '신앙과 삶의 일치'의 목회철학, 실제 사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정착되어 지금의 세상의빛교회가 된 것이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이제 9년의 역사를 가진 세상의빛교회를 다시 건강한 교회론과 목회철학에 비추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상의빛교회가 역점을 둔 것은 이 시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충실하고, 그 복음을 구현하는 교회를 목표로, 1) 어떻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2)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설교와 양육을 통해 영적 기초를 다질 것인가? 3) 실제로 믿음을 따라 공동체적이며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과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왔다. 이러한 고민들이 답을 찾았는지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상의빛교회는 지금까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건물이나 교인 수, 예산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해 왔다. 건물은 여전히 임대하여 작은 예배당을 고수하고 있으며, 교인 수에 연연하지 않기 위하여 숫자에 대한 목표도 세운 적이 없다. 건강한 공동체를

214) 유성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교회*, 14-15.

215) 안영혁, *작은 교회가 더 교회답다*, 58-98, 117-185.

세우기 위해 때로는 공동체적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전성도 소그룹 소속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현하며 성장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해마다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읽기 사역을 보완하며 지속해 왔다. 나아가 실제로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선교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의빛교회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처음에 고민한 건강한 교회론에 입각하여 비교적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 2. 성장하는 교회의 4가지 동력을 기준으로 평가

사실 객관적으로 교회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몇몇 학자와 목회자들이 제시한 평가의 기준들을 통해 평가해 보고, 미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조성돈이 제시한 성장하는 교회의 4가지 동력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의빛교회를 평가해 보자.<sup>216)</sup> 그 네 가지는 1) 분명한 목적, 2) 개혁에 대한 의지, 3) 예배와 영성, 4)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 2번은 상, 3, 4번은 중이다. 먼저 세상의빛교회는 분명한 모토를 가지고 있으며, 성도들 대부분이 모토와 4대 비전을 잘 알고 있다. 모토와 각 비전을 위해 다양한 사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소그룹공동체가 잘 세워져 있고, 미래의 크리스천 지도자를 세워가기 위해 세계관 교육과 리더십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있으며, 선교와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역에 거의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일치감 또한 높은 편이다.

둘째, 세상의빛교회는 새로 개척된 교회이고, 젊은 세대들을 직접 양육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의지와 개혁에 대한 수용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젊은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도, 계속된 목회자와의 소통을 통해 개혁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납득시키고 있다. 실제로 예배의 형식, 기도회의 형식과 내용과 시간, 선교 일정, 예배 시간, 소그룹 등 모든 사역에 계속된 개혁을 시도하고 있고,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16) 조성돈, “성장하는 교회의 4가지 동력,” *목회와 신학*, 2012년 1월호, 38-43.

셋째, 예배와 영성의 측면에서 세상의빛교회는 더 강화되어야 할 여지가 많이 있다. 예배가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설교가 더 분명하게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찬양팀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바쁘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다보니 연습할 시간을 많이 갖기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나아가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와 거리가 있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기도에 더 열정을 쏟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설교와 찬양을 잘 보완하고, 좀 더 기도에 열정을 기울인다면 훨씬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소통 문제도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이다. 우선 서초동 지역은 지역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지역에서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세상의빛교회는 복지 수요가 많은 관악구나 금천구 같은 지역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으며, 해외 빈민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세워주는 선교적 공동체로 사역했다.<sup>217)</sup> 필리핀 빈민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의료사역 등을 통해 다섯 교회가 개척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선교지에 직접 가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지역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마사지 사역으로 섬기고 있으나 매우 미약한 편이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상가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정오기도회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직장인들이 낮에 쉬며 묵상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을 하려고 한다. 또한 교육열이 높은 이 지역에서 세상의빛교회의 다양한 직업군의 인재들을 활용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비전세미나를 개최하여 자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사역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며 복음 전파의 교두보를 삼으려 한다.

이렇게 평가해 보니 세상의빛교회는 목회의 철학과 방향성, 그 방향성을 추구하려는 개혁의 의지가 강하고, 따라서 미래에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예배와 영성의 부분에서 보완할 점이 있고, 9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 깊이 스며들지 못했다는 것은 소형교회의 한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217) 배성우, “서울모자이크교회 박종근 목사: 작은 교회 ‘글로벌’ 목회를 지향합니다,” *목회와 신학*, 2013년 9월호, 82-85.

### 3. 좋은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에 의한 평가

또 다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해 보도록 한다. 김한수는 좋은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sup>218)</sup> 1)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2) 은사 중심적 사역, 3) 열정적 영성, 4) 기능적 조직, 5) 영감 있는 예배, 6) 전인적 소그룹, 7) 필요중심적 전도, 8) 사랑의 관계이다.

우선 세상의빛교회는 1), 2), 4), 6), 8)번에 있어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세상의빛교회는 평신도들이 모든 사역에 참여한다. 물론 그들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활용된다. 설교와 세미나 교안의 번역, 양육을 위한 교재의 PPT 제작, 각종 영상 제작과 홈페이지 관리, 주일학교, 봉사과 단기사역 등에 다양한 달란트로 평신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참여한다. 세상의빛교회는 기능을 위한 조직만 만들었다. 전도회나 위원회 같은 과거의 전통적인 조직보다는 소그룹, 선교와 찬양을 위한 조직만이 존재한다. 주일에 거의 회의를 하지 않고, 주로 예배와 교제와 이웃봉사에 힘쓴다. 전인적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 지속적인 양육과 설득과 코칭을 했고, 소그룹이 세워지니 사랑의 관계, 즉 교회 밖에서도 만나고 돕는 관계들이 형성되었다. 성도들은 주일에 일찍 집에 가려 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웃음과 기쁨의 교제가 많이 있다.

반면에 3), 5), 7)번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우선 세상의빛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지만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 중심의 사역에서 나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찬양과 기도의 뜨거운 열정은 좀 부족한 편이다.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찬양과 열정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예배에 대한 강조와 열정적인 신앙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불신자들의 의문에 답하고, 필요를 채우는 삶을 생활화하여 필요중심적 전도를 훈련해야 할 것이다.

### 4. 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

218) 김한수, “좋은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 *목회와 신학*, 2012년 1월호, 52-57.



### 가. 열정적 영성과 영감 있는 예배

세상의빛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다. 건강한 교회, 새로운 교회에 대한 소망이 크다. 가능성도 많다.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열정적인 기도와 뜨거운 사모함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들을 주축으로 하는 교회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 세상의빛교회는 열정적인 기도와 주님을 향한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다양한 기도회 시간을 개발하고, 젊은 세대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를 훈련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소그룹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다같이 기도하면서 새로 공동체에 들어온 영혼들이 기도를 경험하도록 한다.
- 평일 심야기도회 시간에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회에 참석한 다른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 평일에 기도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 토요일 기도회를 강화한다.
-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 찬양팀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연습을 강화한다.
- 복음에 충실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을 제시하는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기에 힘쓴다.
-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도록 소그룹 예배에서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지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삶의 변화를 촉진하도록 계속해서 리더들을 코칭한다.

### 나. 필요중심적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

닐 콜은 자신의 책에서 현대 교회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Life Transforming Groups)을 제안했다. 닐 콜이 제안한 LTG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다. 소그룹 안에서의 죄의 고백, 성경 읽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기도이다.<sup>219)</sup> 세상의빛교회는 닐 콜의 소그룹 사역을 적용하여 전 성도가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소그룹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도들 주위

219) Nei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NCD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4), 115-126.

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해 왔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필요중심적 전도를 훈련하지는 못했다. 이 시대의 각 세대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목회자는 그들의 필요에 영적으로 답하기 위하여 어떻게 예배를 통해 준비할 것인지 고민한다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아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가진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정기적으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위 사람들이 누구인지와 그들이 어떤 필요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지하도록 교육한다.
- 성도들이 상황에 밀려 주위 사람들의 필요들에 응하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 그들을 코칭하고 격려한다.
-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들을 위해 소그룹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소그룹에 초청되었을 때 잘 응대하도록 준비할 것들을 미리 챙긴다.
- 정기적으로 소그룹의 리더들과 함께 이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 어려움들을 이해하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 소그룹 리더가 그룹원들에게 필요중심적 전도를 독려하도록, 소그룹 리더들을 계속적으로 교육한다.

다. 지역 사회와 소통하여 복음의 교두보를 마련

릭 워렌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매우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sup>220)</sup> 요즘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도심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적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 테드 헤거드는 도시에서 교회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 연구, 최근의 견해와 동향에 대한 평가, 현재 우리의 도시의 복음화 상황 쉽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간단한 영적 지도 그리기이다.<sup>221)</sup> 서울 강남 지역은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지

220) Rick Warren, *The Purpose-Driven Church*, 155.

221) Ted Haggard and Jack Hayford, *지역을 바꾸는 교회*, 예수전도단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109-113.

역이었으나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커진 상태이다. 이 지역 기독교인들은 대형교회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가거나 냉담자들이 되어 있고,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지역 전체가 유흥과 쾌락의 소굴이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서울 도심 지역에서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유일한 방법은 지역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소통이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내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해야 하며, 외적으로 희생과 사랑의 자세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상의빛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여 복음 전파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교회 주변 지역의 직장인들에게 교회를 개방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쉬고 기도하며,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니엘 정오기도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장생활 가운데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 교회 주변의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을 순회하며 업주들과 대화하고, 교회가 해주길 바라는 일들을 찾아 시도하며, 교회의 본질과 선한 이웃으로의 역할을 인지하도록 돕는다.

- 교회 주변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교회 주위의 학원들과 연계하여 자녀들의 인성이나 미래의 비전과 관련된 세미나를 기획하고 지원한다.

## 제 6 장

### 결 론

이 시대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한 교회이다. 이것이 시대의 요청이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다양한 원인으로 교회의 참 모습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겼다. 교회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교회를 갱신하라는 다양한 요구들은 한국교회가 정의로부터 많이 벗어났기 때문이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답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거룩하고 힘겨운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수많은 세계의 이웃들을 살리는 길이다. 교회가 살면, 교회를 통해 세상이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이다.

첫째, 건강한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여야 한다. 먼저 교회는 복음의 수호자여야 한다.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진리와 기둥의 터'이다.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고수하며 그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시대의 교회는 진리를 고수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교회는 여전히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에게 교리를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진리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의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된 지체들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어느 누구도 아닌 주님의 통치를 따라 존

재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어느 지도자 개인이나 교인들 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는 안된다. 지도자나 교인들이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도를 보여야 한다(엡 5:21).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몸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데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헌신되고, 서로를 은사대로 존중하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는 늘 인간의 탐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의 개교회들의 모습은 주님이 머리되셨다고 보기에 힘든 상황이다. 탐욕에 물들어 있다. 주님께서 머리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각종 분쟁과 고소가 난무하고 있다. 개교회의 지도자들부터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도구이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존재의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나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피켓이나 전도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방식,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유이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세상의 조직으로 전락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계 2:5).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도록 교회는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공동체에 수적 부흥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좀 오래된 보도이긴 하지만, 2006년 박영신 연세대 명예교수는 '개신교가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종교로서의 성스러움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 경제지상주의와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sup>222)</sup> 이러한 교회 밖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성도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화와 맥을 같이 하여 물질주의를 따라가고 있다. 어느덧 사명과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다

222) 정천기, "2006 문화예술 ⑦종교", 연합뉴스, 2006. 12. 17일자.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 깊이 성찰하고 회개함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감사하게도 다양한 변화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다양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회의 위기 탈출과 제도약을 위해 다양한 사회의 요구들을 수용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들을 채워야 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갱신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무엇이든, 성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회개혁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교회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교회개혁의 확실성은 우리가 피해야 할 요소이다. 이제 엄청나게 다양하게 분화되고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다양한 교회들이 서로 보완하며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도심 지역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 이것은 주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세대,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문화들을 찾는 ‘니치’와 ‘내로우캐스팅’ 시대에 교회의 새로운 진화다.

도시 지역 교회개혁의 선구자 팀 켈러는 교회개혁을 위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 지역적이며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 자질이나 부르심, 강점 등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이다.<sup>223)</sup> 만약 교회를 개혁하려 한다면 왜 자신이 교회를 개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왜 그 지역에 교회를 개혁하려 하는가 고민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교회의 사명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자신에게 부르심이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어떤 자질이나 강점으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성경과 상황과 자신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이 시대 다양한 사역의 필요들을 복음으로 채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본 논문은 도심 지역에 국한하여 비교적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건강한

223) Keller and Thompson, *Redeemer Church Planting Manual*, 27. 더 자세한 설명은 29-71을 참고.

교회를 개척할 것인지에 대해 다뤘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대, 도심 지역에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여 답을 찾아가는 시도는 한국교회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되리라 확신한다. 나아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젊은 세대들에게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 권위를 내려놓고, 탈권위를 요구하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문화의 중심지인 도시 지역에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건강한 복음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앞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이러한 교회가 확산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교회의 허리가 튼튼해지고, 지금의 청소년 이전 세대들에게 복음의 공동체가 잘 전수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교회는 한국 사회의 유일한 소망이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에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소망이었다. 기존 교회들의 다양한 갱신 노력에 더하여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개척된 교회들이 재 역할을 감당하여 새롭게 갱신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소망이 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은 소망을 되찾게 될 것이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신뢰가 깨져버린 한국 사회에 신뢰가 회복되고, 나아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을 후원하는 한국교회가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교회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날아오를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서적

강민석. “저녁예배 되살려야 온전한 주일성수’… 예장합동 심포지엄.” *국민일보*.  
2014년 10월 28일자.

강주화. “등 돌리는 이유... 누가 기독교에 돌을 던지나.” *국민일보*. 2013년 10월  
18일자.

곽성덕.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운다.” *월간목회*. 2014년 8월호, 88.

\_\_\_\_\_. “전통교회 정체 극복과 활성화 방안 - 에덴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나라 도시지역 인구현황.” Online:  
<http://www.city.go.kr>.

권대익. “종교별 신뢰도 가톨릭·불교·개신교 순.” *한국일보*. 2014년 2월 5일자.

김도훈. “미디어산업, 서비스 논리 추구해야.” *연합뉴스*. 2014년 10월 28일자.

김문석. “회복생명나눔의 사역현장을 소개합니다.” *목회와 신학*. 2012년 6월호.

김성원. “교회 분쟁의 해법은?” *아이굿뉴스*. 2011년 8월 24일자.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1.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3.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_\_\_\_\_. “한국교회 문제의 근원, 신학적 빈곤.”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김세윤 외  
19명.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김한수. “좋은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 *목회와 신학*. 2012년 1월호.

김현선. “20대 ‘조울증’ 환자 급증.” *데이터뉴스*. 2013년 6월 3일자.

김현주.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집값... 인맥까지 포기한 ‘사포세대.’” *세계일보*.  
2013년 12월 11일자.

남소연 홍현진, “혼자 간 ‘집밥’ 모임만 20개... 서울, 외로워요.” *오마이뉴스*. 2014년



10월 18일자.

디지털뉴스팀. “종교 신뢰도 가톨릭, 불교, 개신교 순…개신교 신뢰는 10명 중 2명.”

경향신문. 2014년 2월 5일자.

류순열.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세대갈등에 경제 발목.” *세계일보*. 2005년 1월 27일자.

명성훈. *교회개혁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 1997.

목회와 신학 편집부. *교회 개혁*.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민성기. “‘불금’ 연인과 함께 커플 요가를.” *해럴드경제*. 2015년 2월 9일자.

민장배. *교회개혁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박계현. “신입사원 평균 나이가 33세?...서글픈 ‘올드루키’ 전성시대.” *머니투데이*.

2014년 12월 15일자.

박민균. “신행 불일치가 교회위기의 본질 실천 못하면 복음 땅 속에 묻혀.” *기독신문*.

2014년 11월 4일자.

박상돈. “한국인 근로시간 연간 2천163시간… OECD 2위.” *연합뉴스*. 2014년 8월

25일자.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박은조. “교회개혁 설립 전략에 대한 연구 -분당샘물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박준호. “판교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교회 개혁전략 - 판교 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배성우. “서울모자이크교회 박종근 목사: 작은 교회 ‘글로벌’ 목회를 지향합니다.”

*목회와 신학*. 2013년 9월호.

\_\_\_\_\_.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한 창의적 몸부림.” *목회와 신학*. 2014년 8월호.

백상현. “기감 서울연회 개척교회 현황 보고서… 개척 10년내 41%가 폐쇄, 나머지

절반도 재정 마자립.” *국민일보*. 2012년 2월 14일자.

송창근. “다음 세대에 예수의 빛을 비추는 블루 라이트 처치.” *목회와 신학*. 2012년

6월호.

서화동. “한목협, 목사 500명 설문 ‘신자 78%는 신앙과 삶 일치하지 않아.’” *한국경제*.

2013년 5월 31일자.

성석환.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문화 선교*.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세상의빛교회 홈페이지. Online: <http://www.fnlchurch.org>

세움공동체 카페. Online: <http://cafe.daum.net/yssharon>

신동명. “목회자 신뢰도 ‘급감’ … 도덕성 상실이 치명적.” *기독타임즈*. 2013년 4월 25일자.

신성남. “3000억 호화 예배당과 중세 삼질의 부활.” *당당뉴스 칼럼*. 2013년 12월 30일자.

안영혁. *작은 교회가 더 교회답다*. 서울: 겨자씨, 2001.

안혜신. “다민족·다문화 국가로..대한민국 구성원이 달라지고 있다.” *이데일리*. 2014년 10월 7일자.

양민철 양인호. “1인가구 450만 시대, 골드싱글 1세대 노후가 두렵다... 보건사회연구소 독신 보고서.” *국민일보*. 2014년 11월 13일자.

양희송.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 서울: 포이에마, 2014.

옥한흠. *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우석훈 박권일. *88만원세대*. 서울: 레디앙, 2007.

우성규. “학업·취업 부담… 젊은이들이 떠난다.” *국민일보*. 2008년 12월 10일자.

위키백과. “세속화”. Online: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C%86%8D%ED%99%94>

유경상. *크리스천 씽킹*. 서울: 카리스, 2011.

유성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교회*. 서울: 평단, 2005.

유양욱. “전통적 교회에서 셀을 중심으로 한 교회활성화 방안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2).

유충현. “저출산=저성장 악순환의 덫 한국경제 발목 잡아.” *이투데이*. 2014년 8월 28일자.

유해룡. “건강한 기독교적 기도.” *목회와 신학*. 2013년 8월호.

윤근영. “천주교 인구 10년 전보다 74% 증가.” *연합뉴스*. 2006년 5월 26일.

이대웅. “교회 떠나는 사람들, 주로 서울 지역 청·장년.” *크리스천투데이*. 2011년 12월

3일자.

이병호. “600만 비정규직 시대’…지난해 대비 정규직과 차별 확대.” *민중의 소리*.

2014년 10월 28일자.

이상홍. “공동체를 세우는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의 공동사역이다.” *목회와 신학*.

2012년 5월호.

이용권. “세 집 건너 한 집 1년세 ‘가정갈등’ 경험.” *문화일보*. 2015년 2월 2일자.

이유진 오현태. “어릴 때부터 극한 경쟁... 취업난 생활고의 연속 ‘청춘은 서글프다.’”

*세계일보*. 2011. 12. 17일자.

이종필. “나의 목회철학-세상의빛교회.” *월간목회*. 2014년 12월호.

\_\_\_\_\_.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관통*. 서울: 넥서스크로스, 2014.

\_\_\_\_\_.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신약관통*. 서울: 넥서스크로스, 2014.

이진영. “우울한 韓 청춘의 자화상’ 결국 일자리가 핵심.” *이투데이*. 2014년 11월

8일자.

장남혁. *한국문화 속의 복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정갑신. “목회비전, 나는 이렇게 세웠다.” *목회와 신학*. 2013년 12월호, 51.

정도일. “주간 통계 - ‘셀카’를 사랑하는 한국(1.11~17).” *동아일보*. 2015년 1월 23일자.

정자연. “SNS·동호회는 취업 지름길?.” *경기일보*. 2014년 7월 30일자.

정천기. “2006 문화예술 ⑦ 종교.” *연합뉴스*. 2006년 12월 17일자.

정철근. “국제시장 세대와 미생 세대가 공생하려면.” *중앙일보*. 2015년 1월 5일자.

조성돈. “성장하는 교회의 4가지 동력.” *목회와 신학*. 2012년 1월호.

주성준. *예수와 하나님 나라*. 서울: 해안, 1995.

지호일. “한국교회 신뢰도 또 추락... 기윤실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

*국민일보*. 2010년 12월 15일자.

\_\_\_\_\_. “미자립교회 ‘빈곤 악순환’ 고착화... ‘건강한 교회’로 양육책 시급.” *국민일보*.

2009년 7월 29일자.

최광영. “도시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주일 프로그램 사례분석과 방안.”

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9.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최원준. “예배, 예전과 문화가 만나다.” *목회와 신학*. 2012년 4월호.
-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한국컴퓨터선교회. “한국의 복음화 지도(1~16회).” *국민일보*. 2006년 8월 15~17, 20~25, 27~31, 9/15 일자.
- 황성철. *개혁주의 목회신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4.

## 2. 번역서적

- Bauerlein, Mark. *가장 멍청한 세대*. 김선아 역.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4.
- Belcher, Jim. *깊이 있는 교회*. 전의우 역. 서울: 포이에마, 2011.
- Berkhof, Louis.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역. 파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 Bright, John. *하나님의 나라*. 김인환 역. 파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Carnegie, Breckenridge Dale. *인간관계론*. 최염순 역.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4.
- Chester, Tim and Steve Timmis. *교회다움*. 김경아 역. 서울: IVP, 2012.
- Clowney, P Edmund.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 Cole, Neil. *교회 3.0*. 안정임 역. 경기: 스텝스톤, 2012.
- \_\_\_\_\_. *오가닉 처치*. 정성목 역. 서울: 가나복스, 2006.
- \_\_\_\_\_.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NCD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4.
- Erickson, J Millard.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Frost, Micheal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 IVP, 2009.
- Gibbs, Eddie. *베스트 처치*.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 Giles, Kevin. *신약성경의 교회론*. 홍성희 역. 서울: CLC, 1999.
- Goldsworthy, Graeme. *복음과 하나님 나라*. 김영철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0.
- Guder, Darrell. *선교적 교회*, 정승현 역.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3.
- Haggard, Ted and Jack Hayford. *지역을 바꾸는 교회*. 예수전도단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 Harkin, James. *니치*. 고동홍 역. 서울: 더숲, 2012.
- Horton, Michael. *개혁주의 조직신학*.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 Hybels, Bill. *섬김의 혁명*. 서원희 역. 서울: 두란노, 2004.
- Jeges, Oliver. *결정 장애 세대*. 강희진 역. 서울: 미래의 창, 2012.
- Keller, Timothy. “다원주의 시대 속에 말씀선포.” *목회와 신학*. 2012년 12월호.
- Labberton, Mark. *제일소명*. 하보영 역. 서울: IVP, 2014.
- Ladd, George Eldon.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박미가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 \_\_\_\_\_. *하나님 나라*.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Leithart, Peter. *하나님 나라와 능력*. 안정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MacArthur John 외. *솔라 에클레시아*.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MacChia, Stephen.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 Malphurs, Aubrey. *21세기 교회개혁과 성장과정*.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6.
- Maxwell, John. *리더십의 법칙*. 강준민 역.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3.
- \_\_\_\_\_. *리더십 101*. 김정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1.
- McKnight, Scot. *예수 왕의 복음*. 박세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_\_\_\_\_. “이머징처치의 5가지 흐름들.” *크리스챤너티 투데이*. 2007년 2월호.
- Neill, Stephen. *기독교 선교사*. 홍치모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Newbigin, Lesslie. *교회란 무엇인가*. 홍병룡 역. 서울: IVP, 2010.
- \_\_\_\_\_.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 \_\_\_\_\_.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홍병룡 역. 서울: 아바서원, 2014.
- \_\_\_\_\_. *오픈 시크릿*.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2.
- Nouwen, Henri.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2001.
- Peterson, Eugene. *깎땀기 목회자는 가라*.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 Rainer, Tom and Ed Stetzer. *교회혁명*. 궁인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12.
- Ridderbos, Herman.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솔로몬, 2008.
- Sanchez, Daniel and Edy Smith and 김종환. *재생산하는 교회*. 박성창 역. 서울: 서로사랑, 2006.
- Sine, Tom. *하나님 나라의 모략*. 박세혁 역. 서울: IVP, 2014.
- Snyder, Howard. *교회 DNA*. 최형근 역. 서울: IVP, 2008.

- Stanley, And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윤종석 역. 서울: 디모데, 2014.
- Toler, Stan and Alen Nelson. *파이브 스타 교회*.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2002.
- Towns, Elmer and Douglas Porter. *세계 10대 부흥의 역사*. 박현식·장기혁 공역.  
서울: 가리온, 2002.
- Wagner, C. Peter. *교회 개척 이렇게 하라*. 서로사랑 편집부 역. 서울: 서로사랑, 2002.  
\_\_\_\_\_. *일터교회가 오고 있다*. 이진호 역. 과천: WLI KOREA, 2007.
- Winter, Ralph D. *미션 퍼스펙티브*. 정옥배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0.
- Wright, N Thomas.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양혜원 역. 서울: IVP, 2009.

### 3. 외국 서적

- Keller, Timothy and J. Allen Thompson. *Redeemer Church Planting Manual*. New  
York: Redeemer Church Planting Center, 2002.
- Warren, Rick. *The Purpose-Drive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95.

Vita of  
Jongpil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The Light of the World Church, Seoul.

Personal Data:

Birthdate: May 20, 1972  
 Marital Status: Married to Euijung Ahn  
 with 3 Children, Sieun Jimin Jaehyun  
 Home Address: 205-1101 GwanaksanHumansia APT,  
 Nanhyang-dong, Gwanak-gu, Seoul, Korea  
 Phone: 010-8711-4331  
 Denomination: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October 22, 2002

Education:

B. A.: Yonsei University, Seoul, 1998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1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3/2006 to present: Senior Pastor  
 of The Light of the World Church, Seoul.  
 11/2002 to 6/2005: Assistant Pastor  
 of Wangsung Church, Seoul

6/2000 to 9/2002: Assistant Pastor  
of Choonghyun Church, Seoul